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23년 8월

교육학석사(일반사회교육)학위논문

고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에서의 근로자 인권교육에 관한 내용 분석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일반사회교육전공

김 하 연

고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에서의 근로자 인권교육에 관한 내용 분석

Analysis of Human Rights Education for Workers
in the High School Social Studies Curriculum

2023년 8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일반사회교육전공

김 하 연

고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에서의 근로자 인권교육에 관한 내용 분석

지도교수 윤 상 용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일반사회교육)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함.

2023년 4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일반사회교육전공

김 하 연

김하연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임 상 수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이 종 하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윤 상 용 인

2023년 6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 목 차 -

ABSTRACT	vii
제1장 서론	1
제1절 문제제기	1
제2절 연구의 목적	3
제2장 이론적 논의	6
제1절 고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의 검토	6
1. 사회과 교육의 내용 범위 및 교육과정의 목표	6
2. 사회과 교육 변천과정	7
3. 근로자 인권 교육의 정의	11
제2절 고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의 평가 기	15
1. 2015 개정 교육과정 ‘통합사회’ 성취기준	15
2. 2015 개정 교육과정 ‘정치와 법’ 성취기준	20
제3절 사회과 교육과정에서의 근로자 인권 관련 내용 검토	22
1. 2009 개정 교육과정 사회과 정의	22
2. 2009·2015 개정 교육과정 사회과 비교	22

제3장 연구문제 및 분석방법	28
제1절 연구문제	28
제2절 분석대상	29
제3절 분석방법	32
1. 분석기준	32
2. 분석체	34
 제4장 분석 결과	 35
제1절 교과서별 근로자 인권 관련 내용 분석 기준	 35
제2절 ‘통합사회’ 교과서별 근로 교육 관련 내용 분석 결과	 38
1. 천재교육	38
2. 지학사	43
3. 비상교육	50
제3절 ‘정치와 법’ 교과서별 근로 교육 관련 내용 분석 결과	 58
1. 천재교육	58
2. 지학사	61
3. 비상교육	65
제4절 교과서 내용 분석 종합	69

제5장 결론 및 제언	75
참고문헌	79

- 표 목 차 -

<표 2-1> 우리나라 사회과 변천과정	8
<표 2-2> IV. 인권 보장과 헌법 성취기준	15
<표 2-3> V. 시장 경제와 금융 성취기준	16
<표 2-4> IV. 인권 보장과 헌법 성취기준단원별 성취수준 예시	18
<표 2-5> V. 시장경제와 금융 성취기준단원별 성취수준 예시	19
<표 2-6> V. 사회생활과 법 성취기준	20
<표 2-7> V. 사회생활과 법 성취기준단원별 성취수준 예시	21
<표 2-8> 2009 개정 ‘사회’와 2015 개정 ‘통합사회’ 교육과정의 비교	23
<표 2-9> 2009 개정 교육과정 ‘일반사회’ 영역 내용	24
<표 2-10> 2009 개정 ‘법과 정치’와 2015 개정 ‘정치와 법’ 교육과정의 비교	26
<표 3-1> ‘통합사회’ 교과서 분석 범위	30
<표 3-2> ‘정치와 법’ 교과서 분석 범위	31
<표 3-3> 근로기준법의 유형과 분석 기준	32
<표 4-1> 근로기준법의 유형에 따른 분포 분석기준	35
<표 4-2> 천재교육 단원구성	38
<표 4-3> 천재교육 IV. 인권 보장과 헌법 유형에 따른 분포	40
<표 4-4> 천재교육 V. 시장 경제와 금융 유형에 따른 분포	42
<표 4-5> 지학사 단원구성	43
<표 4-6> 지학사 IV. 인권 보장과 헌법 유형에 따른 분포	46
<표 4-7> 지학사 V. 시장 경제와 금융 유형에 따른 분포	49
<표 4-8> 비상교육 단원구성	50
<표 4-9> 비상교육 IV. 인권 보장과 헌법 유형에 따른 분포	52

<표 4-10> 비상교육 V. 시장 경제와 금융 유형에 따른 분포	54
<표 4-11> 천재교육 단원구성	58
<표 4-12> 천재교육 V. 사회생활과 법 유형에 따른 분포	60
<표 4-13> 지학사 단원구성	62
<표 4-14> 지학사 V. 사회생활과 법 유형에 따른 분포	63
<표 4-15> 비상교육 단원구성	65
<표 4-16> 비상교육 V. 사회생활과 법 유형에 따른 분포	68
<표 4-17> ‘통합사회’ IV단원의 유형에 따른 분석 종합	70
<표 4-18> ‘통합사회’ V단원의 유형에 따른 분석 종합	71
<표 4-19> ‘정치와 법’ V단원의 유형에 따른 분석 종합	72
<표 4-20>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탐구 영역 과목별 응시자 현황	74

- 도 목 차 -

<그림 3-1> 본 연구의 분석과정	34
<그림 4-1> 천재교육 ‘청소년 알바 10계명’	43
<그림 4-2> 지학사 ‘청소년 알바 10계명’	47
<그림 4-3> 비상교육 ‘청소년 알바 10계명’	56
<그림 4-4> 비상교육 역사 속 세상 읽기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67

ABSTRACT

Analysis of Human Rights Education for Workers in the High School Social Studies Curriculum

Kim Ha-Yeon

Advisor : Prof. Yun, Sang-Yong, Ph.D.

Major in General Society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the proportion of content related to workers' human rights in 'Integrated Society', a required subject for first-year high school students produced in accordance with the achievement standards of the 2015 revised curriculum, and 'Politics and Law', an optional subject in the 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 under the high school credit system. We analyzed what was being dealt with. This study analyzes the distribution and statements of workers' human rights-related content presented in the 'Integrated Society' and 'Politics and Law' textbooks according to the 2015 revised curriculum. It is meaningful that the contents of the labor-related laws learned in high school are sufficient to help students cope with labor problems that may arise as youth workers or adult workers.

The textbook analysis of this study selected Genjae Education Co., Ltd., Jihaksa Co., Ltd., and Bisang Education Co., Ltd. among the certification textbooks of 'Integrated Society' and 'Politics and Law' of the 2015 revised curriculum, and selected 'Integrated Society' as units containing labor-related contents. ' in IV. Human Rights Protection and the Constitution, V. Market Economy and Finance, 'Politics and Law' V. It

was aimed at social life and law. The analysis results according to the research problem are as follows.

First, what can be seen through the distribution according to the type of Labor Standards Act in the three types of 'Integrated Society' textbooks in the 2015 revised curriculum is that the amount of labor-related content is not consistent for each textbook. However, it was found that each textbook presented various explanation methods or statements in order to enhance understanding of the concept. In the learning process, it is expected that learning burden and confusion will be reduced if efforts are made to prevent subtle differences and misconceptions in the explanation of the same concept.

Second, when looking at the distribution according to the type of Labor Standards Act in the three types of 'Politics and Law' textbooks in the 2015 revised curriculum, the content elements of work education were revised in 2015, befitt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 in which the scope and area of the exam are relatively differentiated. According to the achievement standards of the curriculum, it was found that all textbooks were well structured without omission of content elements. In addition, various reading materials such as photos, illustrations, and examples can be enriched to help comprehension, but the basic theory of the text may reduce the amount of the text due to insufficient space. The 'Politics and Law' textbook presented the most data from Jihaksa as a whole, and Sangsang Education also presented various contents with examples.

Third, high school social studies subject should appropriately reflect practical education and theoretical education along with the contents system when constructing educational contents. Therefore, when looking at whether the youth who have learned work-related contents through 'Integrated Society' and 'Politics and Law' textbooks are providing enough contents to be applied to real life in the future, there is a lack

of cases that are closely related to learners' daily lives. There were 2 textbooks with few work-related cases and 6 cases with many textbooks. In particular, it can be seen that the 'integrated society' has insufficient aspects, such as contents related to the work of minors, not young workers, and detailed listing of industries harmful to youth. 'Politics and Law' has too much content and has been degraded into a subject for exams, and there is a problem that more effort is being devoted to learning the part that can increase discrimination power rather than the part necessary for real life.

In this study, the limitation that 'society' in the existing 2009 revised curriculum was organized as an elective subject due to the elective course of all high school subjects and the omission of work-related education contents was found in the 'integrated society' of the 2015 revised curriculum. This study aimed to examine whether the volume and structure of work-related content were appropriate in that the introduction of major reinforcement in the 2015 revised curriculum introduced discretion in the composition of textbooks for each publisher. The 'integrated society' of the 2015 revised curriculum is an integrated subject that includes morality, geography, history, and general society, which were not previously included in social studies and history. It is expected that the 2015 revised curriculum will be continuously implemented for several years without any change in contents, so the analysis is meaningful.

제1장 서론

제1절 문제제기

학교 현장에서 고등학교 1학년 통합사회 교과는 2022년 기준 일주일에 4단위를 이수하도록 하고 있지만 2023년부터 대부분의 학교는 그 시수를 1단위 줄여 3단위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한다. 국어, 수학, 영어, 과학, 사회 과목이 앞으로 점진적으로 시수를 줄일 예정에 있지만 가장 먼저 줄일 과목을 통합사회과로 할 것을 현장 교사들은 의견을 모았다는 것이다. 사회과 교사들마저 통합사회 교과의 시수를 다른 과목들에 비해 먼저 줄이는 것에 동의한 가장 큰 이유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2015 개정 교육과정 내의 통합사회 교과 내용이 수업 시수를 줄여 운영하는 것에 별 문제가 없다는데 이견이 없었다는 것이다. 지금의 고등학교 1학년 통합사회 내에 법률과 관련된 단원이 학생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를 담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는 가운데 수업 단위마저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현실에서 중요한 법과 관련된 교육은 현재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고교학점제가 도입되고 통합사회 교과와 정치와 법 교과로 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가 제공된다. 하지만 고교학점제가 실시된 학교의 경우 학생이 스스로 정치와 법 교과를 선택과목으로 선택하지 않은 경우 대부분의 학생들은 고등학교 1학년 통합사회 과목이 삶을 살아가는데 마지막으로 듣게 되는 사회 과목이 된다. 특히 이공계, 자연계를 선택한 학생의 경우 그 편중이 더 심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의 기호에 따라 선택과목을 수강하고 수능을 마친 학생들이 마주하게 되는 현실에서 사회·문화와 관련된 뉴스 기사, 이슈를 이해하기에 사회 교과안에서의 법 관련 교육이 적정한가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고등학교 교과서는 실제로 많은 내용과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2015 개정 교육과정은 핵심개념 중심의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고등학교 1학년 ‘통합사회’과목은 이에 따라 ‘인권’이라는 핵심 개념을 제시하고 있고 기본권을 중심으로 인권의 내용

과 보장 방법, 인권적 가치와 태도 등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만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의 내용은 충실히 반영하면서 실생활에 활용될 수 있는 근로 인권 관련 교육과 같은 내용의 성취기준에 부합하는지 내용 구성은 명확한 기준에 의한 것인지 살펴봐야 한다. 특히 고등학교 1학년이 배우는 ‘통합사회’는 인문계 고등학교 재학생뿐 아니라 특성화고 학생 등 우리나라 모든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들어야 하는 필수 과목이라 그 필요성은 더 중요하다고 본다.

‘통합사회’ 과목이 많은 내용을 간략하게 제시하고 있다면 고등학교 2,3학년 선택과목인 ‘정치와 법’은 수능 과목인 만큼 ‘통합사회’에서 핵심개념으로 제시한 인권의 개념을 상세하고 포괄적으로 담고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되면서 ‘통합사회’와 함께 신설된 ‘정치와 법’은 기존의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법과 정치’에서 부동산법, 행정법 등의 내용을 축소하고 소비자과 근로자의 권리의 내용을 강화하였으며 이는 학생들에게 실생활에 필요한 교육의 수요를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정치와 법’을 선택과목으로 택한 학생 대부분 비슷한 계열의 학과에 진학 할 것이라고 예상된다면 ‘정치와 법’에서 담고 있는 핵심개념이 인권 관련 지식을 키우는데 적합한가에 대해 살펴볼 필요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와 법’을 선택한 학생은 일부라는 점에서 교과 필수과목인 ‘통합사회’의 중요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현재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성취수준에 따라 교사는 그 수업내용을 재구성할 수 있는데 교사가 가진 가치관과 법에 관련된 중요도가 다르다면 학생들이 배우게 되는 내용은 교사의 역량에 따라서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우리나라 고등학교에서 법과 관련된 교과목을 배웠을 때 학생들이 성인이 되어 미래 사회의 정치적 현실과 법에 대한 일반적 상식을 갖출 수 있는가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여 현행 김인정 교과서에 근로자 인권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기해 본 연구를 통해 2015 개정 교육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필요한 근로 관련 내용을 담고 있는 ‘사회’ 과목인 고등학교 1학년 ‘통합사회’와 ‘정치와 법’을 중심으로 분석 범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 자료, 사례, 탐구활동’으로 나누어 근로 관련 범위의 적합성과 형식적인 구성을 종합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제2절 연구의 목적

미디어가 발달한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 청소년들이 과거에 비해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건 사실이지만 여전히 노동 환경에서는 약자가 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근로를 하지 않고 부를 축적할 수 있는 방법도 많지 않아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근로자가 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상황에서 학생들의 근로 인권의 향상에 대한 고찰은 앞 선자들이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강원도 청소년 근로실태조사에 대한 조사 결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무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뉴스핌, 2022.12.14.). 최근까지도 사회에서 일해 본 경험이 있는 청소년 노동자 3명 중 1명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본 적이 없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되었다(가톨릭평화신문, 2023.05.24.). 이것은 사회적 편견과 고용주의 의식부족, 청소년이 가진 가벼운 노동관 등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이나 청소년들이 노동자로 임할 때 제대로 된 고용 절차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제주지역 청소년 1,729명을 대상으로 노동 인권교육과 관련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과반인 60.2%가 노동 인권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제주도민일보, 2023.02.23.)고 응답했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한편, 청소년(15세~24세)이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잘 이해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39.8%에 그치고 있다. 이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미 작성된 양식에 서명하는데 그치고, 해당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의미한다. 특히 15세~18세 청소년, 중·고 재학생의 경우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잘 이해한다는 답이 각각 33.1%, 30.9%로 상대적으로 낮다. 이는 저 연령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근로권익 보호와 관련한 교육에 있어 근로계약서에 포함되는 사항뿐만 아니라 그것이 의미하는 바에 대한 눈높이 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한다(김나영, 2023).

노동시장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노동 취약계층이 생길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 학생들이 노동 취약계층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 학령

기에 노동시장에서 자신의 위치와 근로자의 권리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학습해야 하는 꼭 필요한 일이다. 인간이 가진 다양한 권리 중에서도 근로의 권리는 우리나라 헌법이 규정하고 있으면서 학생들이 사회에서 가장 먼저 경험하게 되는 기본적인 권리이므로 학교 교육이 갖는 의미가 아주 크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각 학교별로 해당 과목의 교사들의 선호에 따라 다른 교과서를 채택하고 있으며 그 교과서들의 내용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에 따라 대단원이나 중단원의 목차 정도는 맥락을 같이 하지만 실질적인 교과서의 내용은 저자가 중시하는 사고에 따라 다루고 있는 비중이 매우 다르게 구성되어 있다. 특히 ‘통합사회’와 ‘정치와 법’에서 다루고 있는 인권보장과 관련한 내용은 매우 포괄적이다. 엄청나게 방대한 양의 법률에서 학생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을 집필자의 선호에 따라 발췌하여 수록하다 보니 개념 위주의 간략한 내용만 서술되어 있는 경우도 많은 실정이다. 또한 현재 5가지 검·인정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다양한 목차 중 우리는 연소자의 노동과 근로기준법에 관해 살펴보자면 근로기준법에 대해 할애하고 있는 양과 내용이 서로 다르고 판례를 이용해 구체적인 서술을 하고 있는 교과서도 있는 반면 그저 개념의 기술만 언급하고 마무리 한 교과서도 있다.

우리나라는 연소자의 근로보호에 관하여 헌법 제32조 제5항에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조 제4항은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 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함께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전통적으로 우리 사회가 여성과 연소자를 사회적 약자로 인식하고 있으며 그들을 근로기준법 제64조에서는 최저 연령과 취직 인허증 관련 규정으로 보호하고 있고, 제75조 제5항에서도 여성의 근로를 특별법의 성격으로 규정하여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연소근로자와 미성년자이면서 연소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의 구분 자체가 안 되어 있는 교과서도 있다. 따라서 정작 대부분의 청소년이 사회에 나가 가장 먼저 누릴 수 있는 권리이면서 핵심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민법이 보장하는 계약자유의 원칙의 중요 골자인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해서도 교과서가 담고 있는 학습 내용이 적절한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근로자가 임금이나 시간 또는 차별의 문제에 직면했을 때 입법, 사

법, 행정적으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법·제도적 내용을 이해 하는
게 고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의 내용이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 2015 개정 교육과정
의 ‘사회’ 과목인 ‘통합사회’와 ‘정치와 법’을 통해 살펴보고자한다.

제2장 이론적 논의

제1절 고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의 검토

1. 사회과 교육의 내용 범위 및 교육과정의 목표

사회 교과목의 목표는 민주시민의 양성으로 사회교육의 바이블이라고 하는 저서 사회과교육에서는 사회과는 학생들에게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교육하기 위한 학교의 교과를 의미하며 이러한 교과를 가르치는 것이 사회과교육(모경환, 2021)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교육 현장에서는 사회과와 사회교육이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비슷한 개념으로 사회교육, 사회생활과, 일반사회, 사회과학 등이 있으며 개념 정의와 별개로 사회과교육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볼 수 있다.

역사적으로 사회과교육에 대해서 학자들은 매우 다양한 정의를 내렸으나 이러한 정의들을 관통하는 핵심적 내용은 사회과 교육은 한 사회와 국가가 필요로 하는 훌륭한 시민의 육성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다(모경환, 2021). 이러한 측면에서만 봐도 사회과 교육은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시민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학생들에게 민주시민의 자질을 기르게 하도록 하는 것이 학교에서 시행하는 사회교과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도덕과, 과학과 등 시민 교육을 내재하고 있는 과목이 있지만 시민교육은 이것들을 모두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사회교과는 인간의 사회생활을 주요한 내용으로 하고 있고 사회과학과 인문과학을 기초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치, 경제, 사회 및 문화적인 면에서 인간의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을 가르치고, 현재 및 미래에 당면할 여러 가지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하는 교과라고 할 수 있다.(모경환, 2021).

결국 사회과교육의 목표는 사회과교육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며 사회과교육의 내

용선정, 교수·학습 방법, 평가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에 사회과교육 목표의 정의, 유형, 진술 방식을 분명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모경환, 2021). 1차에서 7차 교육과정까지의 교육과정이 주기적이고 일시적이며 전면적인 개정이었다면 이후 2007 개정 교육과정부터는 점진적이고 부분적인 개정으로 바뀌었다. 주목할 만 한 점은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 대강화를 도입하여 기존에 대단원, 중단원, 소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던 진술 체계에 중단원을 삭제하며, 교사의 재량권을 확대했다는 것이다. 또한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고등학교 전체 과정에 선택교육과정을 도입하였으며 학년군제, 교과군제, 교과군 간 수업시수 20% 증감 운영, 집중 이수제 등의 특징을 갖게 되었다(차경수, 2017).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교과별로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교육 내용을 엄선하여 학습량의 적정화를 기하였다. 이러한 핵심 개념을 통해 ‘내용 체계표’를 작성하고 계열성을 추구하고 있다. 문서체제의 변화로는 상세화를 통해 성취 그룹별로 학습요소와 성취기준의 해설,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 평가 방법 및 유의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모경환, 2021). 주요 성취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교사가 현장 수업에 맞도록 유연한 교수·학습 과정의 재구성을 가능하게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른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사회과 목표는 핵심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이자. 여기서 핵심 역량이란 창의적 사고력, 비판적 사고력, 문제해결력 및 의사결정력, 의사소통 및 협업 능력, 정보 활용 능력의 여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2. 사회과 교육의 변천과정

민주시민의 양성을 위한 목표를 가진 사회과 교육은 다른 과목과는 구별되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현실에서 사회와 인간이 당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를 주요 내용으로 다루고 있으며, 따라서 시대의 사회문제 또는 사회 현상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사회과 도입에 결정적인 계기가 된 미국에서의 사회과는 역사 교육 위주의 전통적인 시민성 전달 또는 사회 유지, 존속을 위한 사회교육을 1920년

대 진보주의의 등장을 통해 실생활에서의 학생의 관심과 흥미를 반영한 주제를 통해 스스로 학습 할 수 있도록 하는 반성적 탐구 과정을 지나 1960년대 사회과학자의 탐구 학습을 통해 발견학습을 강조하던 시기를 지나왔다. 우리나라는 미국에서 반성적 탐구모형과 사회과학 모형이 공존하던 시기에 사회과학을 도입하여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와 결합되어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왔다.

우리나라에 제대로 된 사회과학의 도입은 광복 후인 1945년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시기는 교수요목기로서 사회과학이 사회생활과학으로서 도입되었다. 정국이 혼란스럽고 일제의 잔재가 척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군정기로 인해 자유와 평등, 인권 존중, 국민의 정치 참여 등과 같은 민주주의적 요소가 갑작스럽게 도입되었으며 미군정은 전체주의의 식민지 교육 방식을 청산하기 위해 미국 내의 진보주의에 의해 발전한 사회과학을 ‘공민’이라는 이름으로 도입하였다. 학생들은 초등학교에서 공민은 ‘사회생활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제 2차 교육과정에서는 드디어 ‘사회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사회과 교육에는 도덕과 역사, 지리가 포함된다. 학교 현장에서도 사회과로서 교사들의 전문적 학습 공동체와 교과 협의의 기준이 되는 것이다. 이 과목들은 교육과정의 시기에 따라 한 과목으로 통합되기도 하고 분리되기도 하면서 밀접한 관계를 맺어 왔다. 특히 정부의 성격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아 왔는데 예를 들어 독재 정권 시기, 군사정권 시기에는 역사 과목이 사회 과목에서 분리되어 국가주의 교육을 하는데 이용되기도 하였다. 이렇게 사회 교과는 일상생활과 현실 사회의 상황과 맥락에 영향을 많이 받는 과목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은 우리나라의 사회과 도입과 현재 시행되고 있는 2015 개정 교육과정까지의 변천과정이다.

<표2-1> 우리나라 사회과 변천과정¹⁾²⁾

	목표	특징
교수요목기(미군정기)	새로운 독립국가에서의 민주시민 양성과 민주주의 교육	일제강점기 시절의 전체주의 교육을 청산하고 민주주의를 교육하기 위해 미국 진보주의 교육의 결과물인 ‘사회과’를 도입

1) 모경환, 차경수(2021). 사회과 교육. 동문사.
 2) 박상준(2009). 사회과 교육의 이론과 실제. 교육과학사.

제1차 교육과정	정치, 경제, 사회를 중심으로 하고 지리와 역사를 배경으로 하여 민주사회와 공민적 자질의 신장	[고등학교 '사회과'] 일반사회, 도덕, 국사, 세계사, 지리의 다섯 과목이 편성 ① 교과명이 '사회생활과'에서 '사회과'로 바뀜 ② 교수요목기의 '공민' 대신 일반사회와 도덕 신설, 역사도 국사와 세계사로 분화 ③ 일반사회는 필수과목으로서 전 학년에 이수
제2차 교육과정	군사정변 후 민족주체성과 경제성장의 내용을 강화. 수업방법으로 중학교 수준에서도 문제해결학습을 강조하고 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사회생활과는 '사회과'로 이름 바뀜
		[중학교]에서는 '사회'라는 과목 명칭으로 타 영역을 부분적으로 통합
		[고등학교 '사회과'] 일반사회, 국민윤리, 국사, 세계사, 지리 I 을 필수과목으로 정치·경제, 지리 II 를 선택과목으로 지정
제3차 교육과정	독재정치 하에서 국가주의 목표가 반영됨. 고등학교에서는 한국 국민으로서의 긍지와 같은 국가주의적 목표가 구체적으로 강조됨	[초등학교] 사회과에서 특이한 점은 5,6학년애 국사부분과 지리·공민 부분을 분리하여 제시함
		[중학교]에서는 '도덕', '국사'가 독립교과로 편성
		[고등학교] 인문계의 경우 정치·경제, 사회·문화, 세계사, 국토지리, 인문지리 등 다섯 과목 중 한 과목을 모든 학생이 필수로 이수하고 인문과정 학생의 경우 세과목 더 이수하도록 함. 1,2차 교육과정에서 편성되었던 고등학교 일반사회과목이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폐지
제4차 교육과정	제 5공화국으로 전인 교육, 과학기술 교육, 국민정신 교육의 강조	[고등학교] 국사와 국민윤리가 제3차 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독립교과 유지. 기존의 정치·경제, 사회·문화의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구성한 사회 I, 사회 II 과목이 등장
제5차 교육과정	건강하고 자주적인 창의성과 도덕성을 갖춘 인간의 양성	기존의 사회 I, II가 다시 정치·경제 및 사회·문화로 바뀜
제6차 교육과정	제6차 교육과정부터 모든 학교 급에서 '민주 시민적 자질'을 내세움	[중학교] '도덕'은 변함없이 독립교과로 편성되었으나 국사가 다시 '사회'교과 속에 편입
		[고등학교] 국민윤리는 '윤리'로 교과이름 변경 국사가 교과 지위 상실하고 사회과에 포함 → 국사는 공통필수과목 지정
제7차 교육과정	세계 시민 교육 강조	수준별 교육과정이 구성

		<p>각 급 학교에 수행평가 도입, 확대</p> <p>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1~10학년)과 선택중심교육과정(11~12학년)으로 구분</p> <p>사회과 선택과목은 일반선택과 심화선택으로 나뉘는데 ‘인간사회와 환경’과목이 일반선택과목으로 지정</p> <p>한국지리, 세계지리, 경제지리, 한국 근·현대사, 세계사, 법과사회,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 9개 과목이 심화선택 과목으로 지정 (법과 사회 첫 등장)</p> <p>[초등학교]~[고등학교]까지의 사회과 교육과정 내용체계를 ‘인간과 공간’, ‘인간과 시간’, ‘인간과 사회’로 영역을 구분하여 학년별로 제시함</p>
<p>2007년 개정 교육과정</p>	<p>‘역사’영역이 독립과목으로 분리 (역사교육강화)</p> <p>다문화, 인권내용 강화</p>	<p>10학년 내용체계 : 문화, 정의, 세계화, 인권, 삶의 질 ☞ 주제중심통합교육과정</p> <p>‘인간사회와 환경’ 폐지</p> <p>제7차 교육과정까지의 교육과정 개정은 주기적, 전면적, 일시적, 중앙 집중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에 비해 2007개정 교육과정은 주기적 개정에서 수시 개정으로, 전면적 개정에서 부분개정으로, 일시적 개정에서 점진적 개정으로 전문가 주도에서 교사참여의 확대로 변화</p>
<p>2009년 개정 교육과정</p>	<p>글로벌 창의 인재육성</p>	<p>학년별로 제시되었던 성취기준이 학년 군을 단위로 제시</p> <p>학문중심 분과형 교육과정</p> <p>‘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1~10학년)을 단축하여 ‘공통교육과정’(1~9학년)으로 운영하고 고등학교 전체과정을 ‘선택교육과정’ (10~12학년)으로 편성</p> <p>학년군제, 교과군제, 집중 이수제(학교의 여건과 교과별 특성에 따라 개별교과의 이수시기를 특정 학기나 학년에 집중하여 운영할 수 있는 제도/학기당 이수 교과목 수를 8개 이내로 편성하도록 제한하고 교과군별 기준 수업시수를 학년이 아니라 학년군 단위에 따라 제시함)</p>

2015년 개정 교육과정	창의 융합 인재의 양성이 목표 - 핵심역량 6가지 (자기관리 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역량, 심미적감성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	고등학교에 공통과목으로 ‘통합사회’, ‘통합과학’ 과목 신설 →고등학교에서는 국어, 영어, 수학,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 등 6과목이 공통(필수)과목으로 지정
		고등학교 선택과목을 일반선택, 진로선택으로 구분하여 개발하였는데 사회과에서는 여행지리, 사회문제탐구가 진로선택과목으로 신설

<표2-2>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사회과는 시대에 따라 다양한 이름으로 변화되어 왔으며 전면 개정에서 벗어나 부분적 수시 개정이 도입된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10학년(고등학교 1학년)에 도입된 ‘사회’라는 과목은 2009 개정 교육과정을 거치면서 선택과목으로서 ‘사회’와 ‘도덕’군으로 존재하게 되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역사, 도덕, 지리, 일반사회 등 네 영역을 포괄하여 9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한 ‘통합사회’과목으로 신설되었다.

시행을 앞두고 있는 2022년 개정 교육과정을 두고 고교학점제의 전면시행과 자율고, 외고 폐지 등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교과 재구조화 측면에서 부분적 변화를 예고한 다른 과목들과 달리 사회과는 2015 개정 교육과정과 동일하게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점을 통해 현재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통합사회’와 ‘정치와 법’ 과목이 앞으로 수년간 사회과 교육과정에 사용될 것임을 알 수 있다.

3. 근로자 인권 교육의 정의

우리 헌법 제32조 제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사회·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 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제32조 제3항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하며 제5항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고 헌법 조항을 통해 연소자에 관하

여 직접 명시할 만큼 그 중요성이 강조된다.

연소자는 근로기준법 제64조 이하에서 규정하는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를 의미한다. 이들은 나이가 어리며 일반 성인보다 정신적, 육체적으로 미약하고 아직 교육받지 않았기에 근로에 관한 보호가 필요한 실정이다. 우리는 뉴스를 통해 ‘노동 착취’에 내몰리는 10대들(세계일보, 2018.10.03)의 기사를 볼 수 있다. 또한 특성화고에서 현장실습을 간 학생들이 적응력과 현장 경험을 쌓는 게 아닌 위험한 곳에서 단순노동을 하는 경우와 사고로 이어지기도 한다는 기사(세계일보, 2021.11.01.)로 인해 안타까움을 느낀 경우가 있다. 이는 여전히 청소년들이 근로 환경에서 약자로서 법적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연소자의 특별한 보호에 대한 헌법 규정의 연혁을 보면, 제헌 헌법 이래 관련규정의 내용 차이 없이 연소자의 건전한 성장, 교육의 기회보장, 강제노동으로부터의 보호라는 헌법적 정신은 변함없이 줄곧 유지되어 왔다(최상진, 2017). 덧붙여 근로기준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 보장을 향상 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결국 이들의 맥락은 인간의 노동과 관련한 기본권이 하회하지 않도록 법률로서 보호하여야 한다는 의미에서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근로기준법은 민법의 특별법으로 이해한다. 일반적으로 계약은 민법에 해당하지만 우리 법은 근로와 관련된 계약은 갑과 을이 서로 대등하지 않다는 전제하에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으로 분류하고 있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법에 위반되는 근로계약을 맺을 경우 상호 간의 동의가 있었다라도 법적으로 무효인 계약에 해당하며 이는 부당 노동계약이 된다. 이렇게 다양한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소년들은 불합리함을 인지하지 못하고 사회교육을 통해 근로기준에 대해 배웠음에도 실생활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이 법은 인종·민족·성별·종교·국적을 가리지 않고 대한민국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동일한 기준으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하였다. 특히 기본권이 침해당하기 쉬운 여성과 소년에 관한 법 조항을 제5장에 직접 명시함으로써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를 없애고자 하는 노력을 기하였다. 연소자의 경우 성인에게 적용하는 근로조건 이외에도 헌법, 근로기준법, 직업 안정법, 청소년 보호법,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서의 근로보호에 관련한 규정이 적용된다(최

상진, 2017).

우리 삶에서 경제적 소득 창출은 개인의 일상을 지속적으로 영위하기 위한 필수 전제조건이라 볼 수 있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부모님, 조부모님 등 본인이 직접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도 지원을 받아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질적으로 각 가정의 구체적 재산이나 소득의 격차, 노동의 유무에 상관없이 소득이 결정되는 예측할 수 없는 예외성이 항존 한다. 따라서 교과서에서 배워왔던 소득은 개인이 생산요소를 투입하여 얻는 재화라는 내용처럼 단순히 규정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보편적이며 당연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편협적인 사고방식을 지양해야 한다.

청소년은 그들의 노동이 삶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 생활비로 쓰일 경우뿐 아니라 사치재의 구매 용도로도 사용될 수도 있으며 노동이 그들의 가치관을 투영하여 미래에 대한 투자의 밑거름으로 사용하기 위해 일하는 청소년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다. 분명한 건 이들의 다양한 이유는 차치하고 그들의 노동은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에 위배되지 않도록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청소년을 가치 있는 사회적 자원으로 인식하고 사회가 올바르게 수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연소자의 근로보호는 건강의 유지와 건전한 성장, 교육의 기회보장 그리고 인격 수양의 의의를 지닌다(최상진, 2017). 그들이 미래에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주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근로실태에 대하여 정확히 조사하고 법률의 미비점을 재정비하여 그들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인터넷의 비약적인 성장과 미디어 발달을 통해 청소년들이 다양한 직업군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해 볼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고용으로 유인되는데 연소한 청소년들이 아직 미성숙한 상황에서 법에 저촉되는 근로로 연계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또한 당연히 보호받아야 하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서 벗어나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되는 문제 역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우리의 법은 여성과 연소자에 대해 그 보호를 보다 강화하여 규정했다. 다만 여성 근로자 보호 정책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 것에 비해 연소 근로자에 대한 적용은 여전히 정체되어 있다.

최근 우리 법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지고 이를 독려하면서 성별에 대

한 차별을 금지하고 모성과 관련한 보호 정책을 꾸준히 마련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법안 마련뿐 아니라 각종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만큼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만큼 개선되고 있다. 이와 같이 근로조건 등에 있어 연소자와 연혁적 이론적 근거를 같이 하였던 여성에 관한 법 제도는 계속하여 분화 발전하고 있으나, 연소자에 관한 근로보호법 제도는 크게 변화되지 않음에 따라 자칫 연소자의 근로보호 조건이나 정도가 약화된 모습으로 비추어 질 수도 있다(김나영, 2023).

현실에서 청소년들은 기술이나 업무적 능력이 다소 미비하더라도 진입장벽이 낮은 배달업 등에 종사하게 된다. 이들은 대부분 헌법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명시된 당연한 기본권을 보호받지 못하고 일을 하는 경우가 많다. 연소자는 근로를 함에 있어 일반 근로자의 법의 보호망보다 더욱 강한 규정을 적용하여 보호 정보의 접근성 부족, 근로에 관련된 권리의식 부재를 인식하고 일반 근로기준법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아닌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게 이해하기 쉬운 독립된 법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현재 다양하게 고용되어 있는 연소한 청소년의 고용실태와 근로보호에 관한 법 제도 및 정책을 분석하여, 이들의 근로보호에 대한 별도의 독립적인 법률의 제정 필요성의 연구와 함께 그동안 근로보호에 부족한 면을 보완하는 등 보다 철저하고 합리적인 보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김나영, 2023).

제2절 고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의 평가 기준

1. 2015 개정 교육과정 ‘통합사회’ 성취기준

<표2-2> IV. 인권 보장과 헌법 성취기준³⁾

교육과정 성취기준	평가기준	
<p>[10통사04-01] 근대 시민 혁명 등을 통해 확립되어 온 인권의 의미와 변화 양상을 이해하고, 현대 사회에서 주거, 안전, 환경 등 다양한 영역으로 인권이 확장되고 있는 사례를 조사한다.</p>	상	근대 시민 혁명 등을 통해 확립된 인권의 의미와 변화 양상을 설명하고, 현대 사회에서 다양한 영역으로 인권이 확장되고 있는 구체적 사례를 조사하여 분석할 수 있다.
	중	근대 시민 혁명 등을 통해 확립된 인권의 의미를 설명하고, 현대 사회에서 다양한 영역으로 인권이 확장되고 있는 사례를 조사하여 설명할 수 있다.
	하	근대 시민 혁명 등을 통해 확립된 인권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
<p>[10통사04-02] 인간 존엄성 실현과 인권 보장을 위한 헌법의 역할을 파악하고, 준법 의식과 시민 참여의 필요성에 대해 탐구한다.</p>	상	인간 존엄성 실현과 인권 보장을 위한 헌법의 역할을 분석하고, 준법 의식과 시민 참여의 필요성을 구체적 사례를 들어 설명할 수 있다.
	중	인간 존엄성 실현과 인권 보장을 위한 헌법의 역할을 설명하고, 준법 의식과 시민 참여의 필요성을 제시할 수 있다.
	하	인간 존엄성 실현과 인권 보장을 위한 헌법의 역할을 제시할 수 있다.

3) 교육부(2015). 2015개정 교육과정 평가기준. 별책 7 사회과 교육과정, 32.

[10통사04-03] 사회적 소수자 차별, 청소년의 노동권 등 국내 인권 문제와 인권지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세계 인권 문제의 양상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상	국내 인권 문제와 세계 인권 문제의 양상을 조사하여 분석하고, 이에 적합한 해결 방안을 다양한 측면에서 제안할 수 있다.
	중	국내 인권 문제와 세계 인권 문제의 양상을 조사하여 설명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하	국내 인권 문제와 세계 인권 문제의 양상을 조사하여 제시할 수 있다.

<표2-3> V. 시장 경제와 금융 성취기준⁴⁾

교육과정 성취기준	평가기준	
[10통사05-01] 자본주의의 역사적 전개 과정과 그 특징을 조사하고 시장경제에서 합리적 선택의 의미와 그 한계를 파악한다.	상	자본주의의 역사적 전개 과정과 그 특징을 조사하여 분석하고, 시장경제에서의 합리적 선택의 의미와 그 한계를 구체적 사례를 통해 설명할 수 있다.
	중	자본주의의 역사적 전개 과정과 그 특징을 조사하여 설명하고, 시장경제에서의 합리적 선택의 의미와 그 한계를 제시할 수 있다.
	하	자본주의의 역사적 전개 과정과 그 특징을 조사하여 제시할 수 있다.
[10통사05-02] 시장경제의 원활한 작동과 발전을 위해 요청되는 정부, 기업가, 노동자, 소비자의 바람직한 역할에 대	상	시장 경제의 원활한 작동과 발전을 위해 요청되는 정부, 기업가, 노동자, 소비자의 바람직한 역할을 사례를 분석하여 구체적으로 제안할 수 있다.

4) 교육부(2015). 2015개정 교육과정 평가기준. 별책 7 사회과 교육과정, 33.

해 설명한다.	중	시장 경제의 원활한 작동과 발전을 위해 요청되는 정부, 기업가, 노동자, 소비자의 역할을 사례를 들어 제시할 수 있다.
	하	시장 경제의 원활한 작동과 발전을 위해 요청되는 정부, 기업가, 노동자, 소비자의 역할을 열거할 수 있다.
[10통사05-03] 자원, 노동, 자본의 지역 분포에 따른 국제 분업과 무역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무역의 확대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사례를 통해 탐구한다.	상	자원, 노동, 자본의 지역 분포에 따른 국제 분업과 무역의 필요성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무역의 확대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을 사례를 통해 분석할 수 있다.
	중	자원, 노동, 자본의 지역 분포에 따른 국제 분업과 무역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무역의 확대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을 사례를 통해 제시할 수 있다.
	하	자원, 노동, 자본의 지역 분포에 따른 국제 분업과 무역의 필요성을 제시할 수 있다.
[10통사05-04]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위해 금융 자산의 특징과 자산 관리의 원칙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생애 주기별 금융 생활을 설계한다.	상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위한 금융 자산의 특징과 자산 관리의 원칙을 비교하여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생애 주기별 금융 생활을 구체적으로 설계하여 평가할 수 있다.
	중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위한 금융 자산의 특징과 자산 관리의 원칙을 설명하고, 이를 토대로 생애 주기별 금융 생활을 설계할 수 있다.
	하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위한 금융 자산의 특징과 자산 관리의 원칙을 열거할 수 있다.

<표2-4> IV. 인권 보장과 헌법 성취기준단원별 성취수준 예시5)

성취수준	일반적 특성
A	<p>근대 시민 혁명 과정을 통해 확립된 인권의 의미를 설명하고 인권 확장 사례를 조사.분석할 수 있으며, 헌법의 분석을 통해 헌법의 역할을 파악하고 준법의 실천과 시민 참여의 필요성을 사례를 들어 설득력 있게 설명하고, 국내외 인권 문제 양상을 분석해 해결 방안을 다양한 측면에서 제안할 수 있다.</p>
B	<p>근대 시민 혁명 과정에서 확립된 인권의 의미를 설명하고 인권 확장 사례를 조사할 수 있으며, 헌법의 분석을 통해 헌법의 역할을 파악하고 준법의 실천과 시민 참여의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며, 국내외 인권 문제의 양상을 분석해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p>
C	<p>인권 의미와 인권 확장 사례와 헌법의 역할을 설명하고 준법 실천과 시민 참여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국내외 인권 문제의 양상과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p>
D	<p>인권의 의미와 헌법의 역할을 설명하고, 준법의 실천과 시민 참여의 필요성을 이해하며, 국내외 인권 문제의 양상을 인식할 수 있다.</p>
E	<p>인권의 의미를 이해하고, 준법의 실천과 시민 참여의 필요성을 인식하며, 국내외 인권 문제의 양상을 인식할 수 있다.</p>

5) 교육부(2015). 2015개정 교육과정 평가기준. 별책 7 사회과 교육과정, 38.

<표2-5> V. 시장경제와 금융 성취기준단원별 성취수준 예시6)

성취수준	일반적 특성
A	<p>사례를 통해 자본주의의 역사적 전개 과정과 특징, 합리적 선택의 의미와 한계점을 분석하고, 시장경제의 원활한 작동과 발전을 위해 요청되는 정부, 기업가, 노동자, 소비자의 바람직한 역할을 근거를 통해 설명하며, 사례를 통해 국제 분업과 무역의 필요성 및 무역의 확대가 우리 삶에 끼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도출하고,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금융 자산의 종류와 특징, 자산 관리의 원칙을 설명하고, 생애 주기별 과업을 고려한 금융 생활을 구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다.</p>
B	<p>사례를 통해 자본주의의 역사적 전개 과정과 특징, 합리적 선택의 의미와 한계점을 제시할 수 있고, 시장경제의 원활한 작동과 발전을 위해 요청되는 정부, 기업가, 노동자, 소비자의 바람직한 역할을 제안하며, 자원, 노동, 자본의 지역 분포에 따른 국제 분업과 무역의 필요성과 무역의 확대가 우리 삶에 끼치는 영향을 사례를 바탕으로 설명하고, 금융 자산의 종류와 특징, 자산 관리의 원칙을 파악하고 생애 주기별 금융 생활을 설계할 수 있다.</p>
C	<p>자본주의의 역사적 전개 과정과 특징, 합리적 선택의 의미를 제시하고, 정부, 기업가, 노동자, 소비자의 경제적 역할을 설명할 수 있으며, 국제 분업과 무역의 필요성 및 무역의 확대가 우리 삶에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열거하고, 금융 자산의 종류와 특징, 자산 관리의 원칙을 제시하고, 생애 주기별 과업과 금융 생활과의 연계성을 확인할 수 있다.</p>
D	<p>자본주의의 역사적 전개 과정과 특징을 열거하고, 시장 경제에서의 정부, 기업가, 노동자, 소비자의 경제적 역할이 서로 다름을 구분할 수 있으며, 무역의 필요성과 무역의 확대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을 제시하고 안정적인 금융 생활을 위하여 자산 관리의 원칙이 존재함을 알고 생애 주기별 금융 생활을 설계해야 함을 설명할 수 있다.</p>
E	<p>자본주의의 의미를 파악하고, 시장 경제에서의 경제 주체의 역할, 무역의 확대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과 필요성,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위한 자산 관리의 원칙을 열거할 수 있다.</p>

6) 교육부(2015). 2015개정 교육과정 평가기준. 별책 7 사회과 교육과정, 39.

2. 2015 개정 교육과정 ‘정치와 법’ 성취기준

<표2-6> V. 사회생활과 법 성취기준⁷⁾

교육과정 성취기준	평가기준	
[12정법05-01] 형법의 의의와 기능을 죄형 법정주의를 중심으로 이해하고, 범죄의 성립 요건과 형벌의 종류를 탐구한다.	상	형법의 의의와 기능을 죄형 법정주의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사례에 나타난 범죄의 성립 요건과 형벌의 종류를 분석할 수 있다.
	중	형법의 의의와 기능을 죄형 법정주의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범죄의 성립 요건과 형벌의 종류를 제시할 수 있다.
	하	형법의 의의와 기능을 죄형 법정주의를 중심으로 설명할 수 있다.
[12정법05-02] 형사 절차에서 인권을 보장하는 원칙을 이해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를 탐구한다.	상	형사 절차에서 인권을 보장하는 원칙을 설명하고 자료 분석을 통해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를 도출할 수 있다.
	중	형사 절차에서 인권을 보장하는 원칙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를 설명할 수 있다.
	하	형사 절차에서 인권을 보장하는 원칙을 제시할 수 있다.
[12정법05-03] 법에 의해 보장되는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이해하고, 이를 일상생활의 사례에 적용한다.	상	법에 의해 보장되는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설명하고, 이를 일상생활의 사례에 적용할 수 있다.
	중	법에 의해 보장되는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설명하고, 이와 관련된 일상생활의 사례를 제시할 수 있다.
	하	법에 의해 보장되는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설명할 수 있다.

7) 교육부(2015). 2015개정 교육과정 평가기준. 별책 7 사회과 교육과정, 214.

<표2-7> V. 사회생활과 법 성취기준단원별 성취수준 예시⁸⁾

성취수준	일반적 특성
A	<p>죄형 법정주의를 중심으로 형법의 의의와 기능, 범죄의 성립 요건과 형벌에 대해 설명하고, 형사 절차에서 인권을 보장하는 원칙과 제도의 의의 및 내용에 대해 설명할 수 있으며, 법에 의해 보장되는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이해하고 이를 일상생활의 사례에 적용할 수 있다.</p>
B	<p>형법의 의의와 기능, 범죄의 성립 요건과 형벌에 대해 설명하고, 형사 절차에서 인권을 보장하는 원칙과 제도의 내용에 대해 설명할 수 있으며, 법에 의해 보장되는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이해하고 이를 <u>일상생활의 사례에 적용할 수 있다.</u></p>
C	<p>형법의 의의와 기능, 범죄의 성립 요건과 형벌에 대해 설명하고, 형사 절차에서 인권을 보장하는 원칙과 제도의 내용에 대해 설명할 수 있으며, 법에 의해 보장되는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설명할 수 있다.</p>
D	<p>형법의 의의와 기능, 범죄의 성립 요건과 형벌에 대해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있고, 형사 절차에서 인권을 보장하는 원칙과 제도를 이해하고 있으며, 법에 의해 보장되는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의 <u>내용을 이해하고 있다.</u></p>
E	<p>형법의 의의와 기능에 대해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있고, 형사 절차에서 인권을 보장하는 원칙을 이해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가 법에 의해 보장됨을 이해하고 있다.</p>

8) 김왕근 외 5인(2019). 고등학교 정치와 법 지도서. 천재교육.

제3절 사회과 교육과정에서의 근로자 인권 관련 내용 검토

1. 2009 개정 교육과정 사회과 정의

2009 개정 교육과정은 전인적 성장을 목적으로 개성의 발달과 진로를 선택하는 ‘자주인’과 기초능력 바탕 위에 새로운 발상과 도전을 발휘하는 ‘창의인’, 문화적 소양과 다원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품격 있는 삶을 영위하는 ‘문화인’, 세계와 소통하는 시민으로서 배려와 나눔의 정신으로 공동체 발전에 참여하는 ‘세계인’의 인간상을 구현하고자 하였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은 국가나 교육청의 기준 및 지침에 의거하여 운영되던 경직성을 탈피하여 교육과정의 탄력적 운영을 지향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교과군, 학년군, 집중이수제를 도입하여 학기당 이수 과목수를 축소하여 학생의 학습 부담을 덜어 학습의 효율성을 높이고, 학교별 자율성 확대를 통해 학교의 다양화를 유도한다(최보람, 2012).

2. 2009·2015 개정 교육과정 사회과 비교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사회과목의 특징은 학년군, 교과군, 고등학교 전 학년의 선택교육과정 운영, 집중이수제라고 할 수 있다. 기존의 10학년, 11학년, 12학년 등의 개별 교육과정을 통합해 고등학교 전 과정을 선택과목으로 선택함으로써 기존의 10학년의 공통과목으로서의 ‘사회’가 삭제된 것이다. 따라서 고등학교 전 과정이 선택 과목화 되었고 ‘사회’, ‘한국사’, ‘도덕’이 학생 선택으로 바뀌었다. 심화선택과목과의 난이도 조정 내용 중복 등의 문제가 거론되기도 하였으며 학교에 배치된 과목 선생님의 전공에 따라 학교가 자체적으로 선택과목을 결정하는 부작용도 있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통합사회’가 신설되어 지난 교육과정의 ‘사회’와 그 내용체계와 목적이 현저한 차이를 보이기는 하나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선택과목의 사회·도덕군의 평가가 ‘통합사회’교과가 필수 과목이 되도록 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선택과목으로서의 ‘사

회'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통합사회'와의 내용체계 비교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2-8> 2009 개정 '사회'와 2015 개정 '통합사회' 교육과정의 비교

학년	2009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		2015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	
	내용체계	영역별 단원수	내용체계	영역별 단원수
10학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변동과 문화 - 인권 및 사회정의와 법 - 정치과정과 참여 민주주의 - 경제 성장과 삶의 질 - 국제 거래와 세계화 	사회문화 1 법 1 경제 2 정치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간, 사회, 환경과 행복 - 자연환경과 인간 - 생활공간과 사회 - 인권보장과 헌법 - 시장 경제와 금융 - 사회 정의와 불평등 - 문화와 다양성 - 세계화와 평화 - 미래와 지속 가능한 삶 	도덕2 지리3 법 1 경제 1 사회문화 1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사회'는 사회, 지리, 역사, 도덕이 모두 분리되어 분과적인 학문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 '사회'란 '일반사회'가 포함하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문화, 법의 내용만을 한권의 '사회'로 구성하고 있으며 학생의 특성과 학교의 재량에 따라 선택을 해야만 들을 수 있는 과목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 2007 개정 교육과정까지의 '사회' 교과는 대부분 통합적인 소양과목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할 지리, 도덕 등을 포함한 보다 넓은 사회과를 의미했으나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선택과목의 선택 여부에 따라 일반사회를 개별과목으로 들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따라서 10학년 사회가 수능과목과 함께 선택과목이 되면서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선택되기 보다는 '법과 정치', '사회문화', '경제' 등의 일반사회의 수능과목을 선택하여 미리 집중 이수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의견이 대다수가 되어 실제로 효과성을 거두지 못한 교육과정이 되었다.

통합과목이 아닌 분과형 과목으로서의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사회’는 영역별 내용이 통합과목인 ‘통합사회’ 비해 상세하게 작성되었으며, 다만 수능과목과의 차별성을 없다는 비판을 받았으며, 현장에서는 학생들이 선택에서 소외되어 필수과목으로 전국의 모든 학생이 반드시 이수해야하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통합사회’과목과는 그 성질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영역 구성의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2-9> 2009 개정 교육과정 ‘일반사회’ 영역 내용9)

영역	내용
사회 변동과 문화	<p>현대 사회의 여러 특징을 사회 변동의 측면에서 이해한다. 그리고 현대 사회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사회적 갈등의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현대 사회에서 나타나는 문화 변동의 양상을 이해하고, 다문화 사회에서 나타나는 문화 갈등의 측면을 분석한다. 나아가 우리 사회가 미래에 겪을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p>
인권 및 사회 정의와 법	<p>현대 민주 국가에서 법이 인권을 보장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역할을 수행함을 이해한다. 오늘날 개인의 인권은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됨을 인식한다. 특히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헌법상 그 제한에는 한계가 있음을 이해하도록 한다. 인권을 비롯한 개인의 권익에 대한 침해는 불법 행위나 범죄가 될 수 있음을 이해하고, 권익이 침해될 경우 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법적 방안을 탐색한다. 또한 법 제도는 국민의 참여를 통해 변동, 발전함을 이해하고 인권 보장 및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한 바람직한 방안을 모색한다.</p>

9) 교육과학기술부(2009). 사회과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9-10호. 32.

<p>정치 과정과 참여 민주주의</p>	<p>정치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시민은 권력의 주체로서 권리를 행사하는 동시에 객체로서 의무를 이행하면서 정치에 참여함을 이해한다. 이러한 참여를 통해 정치 활동의 구조와 기능을 이해하고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p>
<p>경제 성장과 삶의 질</p>	<p>우리나라의 경제 성장과 변동 과정을 이해하고, 지속적인 성장이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요인임을 인식한다. 국민 경제의 주요 목표로서 물가 안정과 고용 안정의 중요성을 이해한다. 경제적 측면 외의 다른 요인들도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인식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살펴본다.</p>
<p>국제 거래와 세계화</p>	<p>국제 거래의 기본적인 특징을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국가 간 교역 확대에 따른 상호 의존이 증가하는 현상을 세계화와 관련지어 이해한다. 또 세계화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세계화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들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대처 방안 등을 모색한다.</p>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사회’와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통합사회’의 일반 사회 영역에서 눈에 띄는 차이는 근로 관련 내용의 유무라고 할 수 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법의 일반사회 영역을 모두 구성하고 있으며 그 구성 내용의 대부분이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통합사회’ 반영 되었으나 2009 개정 교육과정에 근로 관련 교육 내용이 없었다는 특징이 있다. 앞서 제2절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통합사회’는 도덕, 지리, 역사, 일반사회를 간학문적으로 통합하여 기초 소양을 기르고자 한 과목으로 사회 전반에 걸친 다양한 내용을 다루고자 함에 목적이 있다. 따라서 학생이 성인이 되었을 때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대부분의 내용을 필수적으로 학습하도록 하고 있는데 자본주의 국가에서 학생들과 밀접하다고 생각되는 근로 관련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점은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다.

2009 개정 교육과정과 2015 개정 교육과정은 법과 정치 관련 선택과목도 변화가

있었다. 7차 교육과정에서 ‘법과 사회’로 시작되었던 이 과목은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법과 정치’는 ‘정치와 법’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그 내용 체계에도 변화가 있었다. 정치와 법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어 딱 잘라 영역을 구별할 수 없다는 점이 있지만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법과 정치’과목에서 법 영역의 단원이 많았던 것에 비해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정치와 법’에서는 정치 영역의 단원이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사회의 다원화에 대한 요구와 ‘법과 정치’에서 학생에게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평가되었던 부동산관련 법과 국가 행정법이 삭제되고 소비자 이론과 근로 관련 내용이 늘어나게 된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

<표2-10> 2009 개정 ‘법과 정치’와 2015 개정 ‘정치와 법’ 교육과정의 비교

학년	2009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		2015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	
	내용체계	영역별 단원수	내용체계	영역별 단원수
선택과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주 정치와 법 - 민주정치의 과정과 참여 - 우리나라의 헌법 - 개인 생활과 법 - 사회생활과 법 - 국제 정치와 법 	정치 3 법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주주의와 헌법 - 민주국가와 정부 - 정치과정과 참여 - 개인생활과 법 - 사회생활과 법 - 국제 관계와 한반도 	정치 4 법 3

2009 개정 교육과정은 앞선 7차 교육과정이 1997년에 고시가 되어 시간적 차이로 인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난을 받아 온 점에 반성으로 교육과정의 전면 개정이 수시, 부분 개정으로 변경된바 있었다. 처음으로 부분 개정된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사회’에서는 일본과의 독도 문제 등 역사관련 이슈로 너무 급한 개정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고, 이에 따라 2년 만에 또다시 부분 개정된 2009

개정 교육과정은 그보다 더 급하게 만들어져 교육 과정 발표 시 총론과 각론이 동시 고시 되어야 한다는 원칙조차 지키지 못했으며, 2011년에 발표된 각론을 통해 국어영역과 탐구 영역이 재구성됨에 따라 2009 개정 교육과정은 3년간 쓰이고 사라졌다. 다만 이러한 시행착오로 사회과에서 필수과목에 대한 요구가 생겨났고 이를 반영해 학년군제를 폐지하고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10학년(고등학교 1학년)은 반드시 ‘통합사회’ 교과를 이수하도록 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현 시점에서 아직 적용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2022년 12월 22일자로 확정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기제를 도입하여 10학년(고등학교 1학년)에서 통합사회1, 통합사회2를 학기별로 이수하도록 결정되었으며, ‘정치와 법’ 현상 유지하며, 두 과목 모두 내용과 체계는 2015 개정 교육과정과 동일하여 변화가 없음에 따라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통합사회’와 ‘정치와 법’이 앞으로 수년간 지속될 것이 예상되어 교과서 분석의 의의가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제3장 연구문제 및 분석방법

제1절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1학년 ‘통합사회’와 11학년 선택과목인 ‘정치와 법’을 선정하여 교과서 내에 근로자 인권 보호 관련 내용을 분석한다. 그 내용의 적절성과 교과서별 기술적인 방법을 분석하고자 이를 위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연구문제 1.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통합사회’ 교과서에 근로자 인권 내용의 분포는 어떻게 나타나며 교과서별로 어떤 특징을 보이는가?

연구문제 2.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정치와 법’ 교과서에 근로자 인권 내용의 분포는 어떻게 나타나며 교과서별로 어떤 특징을 보이는가?

그리고 우리나라 현행 고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근로자 인권 관련 교육이 충분한 수준인가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문제 3. ‘통합사회’, ‘정치와 법’ 교과서를 통해 학습한 근로 관련 교육이 청소년이 근로자가 가진 권리에 대해 이해하기에 적합한 수준인가?

제 2 절 분석대상

본 연구에서는 현 고등학교의 교과서 중 ‘통합 사회’ 3종, ‘정치와 법’ 3종에 진술된 근로기준법 관련 단원을 분석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통합사회’ 5종 검·인정 교과서 출판사는 천재교육, 지학사, 동아출판, 미래엔, 비상교육이다. ‘정치와 법’ 5종 검·인정 교과서 출판사는 천재교육, 지학사, 금성출판사, 미래엔, 비상교육이다. 이 중 비슷한 유형과 형식의 교과서를 제외하고 방향성이 다른 각각의 3종 교과서를 분석하고자 한다.

‘통합사회’ 교과서는 I. 인간, 사회, 환경과 행복, II. 자연환경과 인간, III. 생활공간과 사회, IV. 인권 보장과 헌법, V. 시장 경제와 금융, VI. 사회 정의와 불평등, VII. 문화와 다양성, VIII. 세계화와 평화, IX. 미래와 지속 가능한 삶으로 구성되어 있다. 선택과목인 ‘정치와 법’ 교과서는 I. 민주주의와 헌법, II. 민주 국가와 정부, III. 정치 과정과 참여, IV. 개인 생활과 법, V. 사회생활과 법, VI. 국제 관계와 한반도로 구성되어 있다.

수많은 단원의 목차 가운데서 정치와 법 <근로기준법>에 대해 분석하여 미비점을 진술하고 교과서적으로 보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학생들이 현실에서 가장 먼저 경험하게 될 근로에 관하여 본인의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고 부당함을 당했을 경우 적극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현재 연소자의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 보호 받아야 하는 학생들이 법의 테두리 밖에서 근로하고 있으며 성인이 되어서도 근로기준법을 인지하고 있는 학생들조차 법을 준수하지 않는 현실의 냉정함과 법의 무지 속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학생들의 사례와 그들을 구제하기 위한 법 교육의 필요성을 교과 과목을 통해 필수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현 교과서를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통합사회’ ‘정치와 법’ 교과목에서 근로기준법은 학생들이 필수적으로 학습해야 될 기회를 가져야 하는 교과 분석의 대상으로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고등학교 교과목인 ‘통합사회’와 ‘정치와 법’을 분석

하여 학생들이 사회생활에서 경험하는 현실적인 법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그 중요성이 저평가 되어있음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법과대학과 관련된 학부로 진학하지 않는 대부분의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겪을 근로기준법과 관련된 부분을 보완하여 학생들이 현실에서 부당하게 처우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본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본다.

현실에서 겪게 되는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 학생들이 좌절하지 않고 이상과의 괴리감을 줄일 수 있도록 교과적으로 접근하여 자연스럽게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담화 분석을 통해 학생들과 학교가 갈등상황을 어떻게 해소하고 있는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 각각의 교과서는 교육부 차원에서 제시된 성취기준에 따라 같은 목차를 구성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에 대한 설명이 있는 단원은 ‘통합사회’는 IV. 인권보장과 헌법, V. 시장경제와 금융, ‘정치와 법’의 V. 사회생활과 법이다. 따라서 교과서의 분석범위는 ‘통합사회’는 <표 3-1>, ‘정치와 법’은 <표3-2>로 다음과 같다.

<표3-1> ‘통합사회’ 교과서 분석 범위

출판사	저자	검정일	분석범위
천재교육	구정화 외 9인	2017. 9. 8	IV. 인권 보장과 헌법 - 130쪽 ~ 131쪽 - 136쪽
			V. 시장 경제와 금융 - 150쪽 ~ 152쪽
지학사	이진석 외 12인	2017. 9. 8	IV. 인권 보장과 헌법 - 121쪽
			V. 시장 경제와 금융 - 149쪽
비상교육	박병기 외 11인	2017. 9. 8	IV. 인권 보장과 헌법 - 117쪽 ~ 118쪽 - 122쪽 - 124쪽
			V. 시장 경제와 금융 - 142쪽

<표3-2> ‘정치와 법’ 교과서 분석 범위

출판사	저자	검정일	분석범위
천재교육	김왕근 외 5인	2018. 9. 14	V. 사회생활과 법 V-3. 근로자의 권리 - 169쪽 ~ 176쪽
지학사	서석범 외 5인	2018. 9. 14	V. 사회생활과 법 V-3. 근로자의 권리 보호 - 164쪽 ~ 175쪽
비상교육	정필운 외 8인	2018. 9. 14	V. 사회생활과 법 V-3. 근로자의 권리 - 158쪽 ~ 164쪽

제 3 절 분석방법

이 연구는 고등학교 1학년 필수과목인 ‘통합사회’와 선택과목인 ‘정치와 법’ 교과서의 내용요소 중에서 ‘근로기준법’에 관련된 내용의 서술 방법을 유형화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1. 분석기준

교과서에 글로 기술된 근로기준법을 분석 가능한 형태로 계량화하기 위해 근로 관련 내용을 법조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유형화 한다. 참고로 노동 3권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헌법에 규정된 권리지만, 근로에 있어 중요한 개념으로 분석 대상에 포함하였다.

<표3-3> 근로기준법의 유형과 분석 기준

유형	내용
연소 근로자의 정의	[근로기준법 제 64조 ①] 근로기준법상 우리나라의 연소자는 18세 미만의 자를 의미한다. 실질적으로 취직 인허증을 허가받는 15세 이상은 근로가 가능하므로 우리 법의 연소자는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자를 의미한다. ¹⁰⁾
근로기준법의 개념	[근로기준법 제1조]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근로계약서의 작성	[근로기준법 제 67조 ①]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청소년이 직접 계약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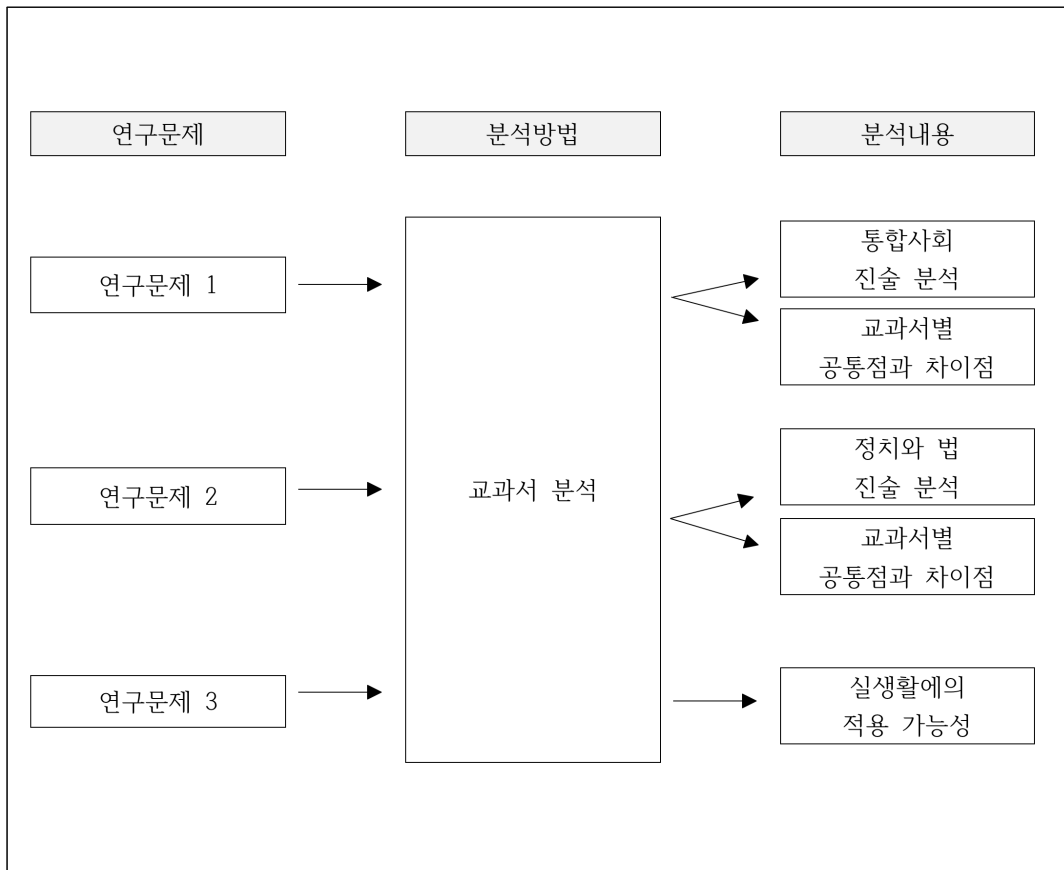
<p>청소년 알바 10계명¹¹⁾</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만 15세 이상의 청소년만 아르바이트, 시간제 근로가 가능하다. 2. 연소자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3.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업무 내용 등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4. 성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받는다. 5. 위험한 일이나 유해한 업종의 일은 할 수 없다. 6. 하루 7시간, 일주일에 35시간 이상 일할 수 없다. 다만,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1일 최대 8시간, 1주 최대 40시간 일을 할 수 있다. 7.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휴일 및 연장근무 시 50%의 가산 임금을 받을 수 있다. 8.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 1주일 개근한 경우 주1일의 유급휴일을 지급 받을 수 있다. 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에 따라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10. 부당한 처우를 당하거나 궁핍한 사항에 대한 상담은 1350
<p>성인 근로자의 차이</p>	<p>성인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 최대 8시간, 1주 최대 52시간의 일을 할 수 있다. 시간과 유해업종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p>
<p>최저 임금</p>	<p>[최저임금법 제1조] 이 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노동3권</p>	<p>[헌법 제33조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p>

10) (청소년보호법)청소년 만 19세 미만의 자
 (민법)미성년자는 행위 능력이 없는 만19세 미만의 자
 (근로기준법 제66조)연소근로자란 18세 미만의 자
 (헌법 제32조 제5항)연소근로자보호제도를 별도로 마련
 11) 고용노동부. 청소년 알바 10계명.

2. 분석체계

다음 그림은 교과서 분석에 대한 본 연구의 연구문제에 따른 분석체계를 도식화한 것이다.

<그림3-1> 본 연구의 분석과정



제4장 분석 결과

제1절 교과서별 근로자 인권 관련 내용 분석 기준

교과서의 기술은 교과서마다 약간의 명칭은 다를 수 있으나 대부분 학습 개념이 되는 본문과 자료, 사례, 탐구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앞서 정의 했던 근로기준법 유형과 분석 기준을 토대로 ‘통합사회’와 ‘정치와 법’에 다음과 같이 7가지 유형을 조작적으로 정의하여 각 내용이 어떤 형식으로 배치되어 있는가를 교과서 별로 각각 정리하였다.

<표4-1> 근로기준법의 유형에 따른 분포 분석기준

유형						
연소 근로자의 정의	근로기준 법의 개념	근로계약 서의 작성	청소년 알바 10계명	연소자가 아닌 미성년 근로자	최저 임금	노동 3권

‘통합사회’와 ‘정치와 법’ 교과서를 분석하여 각각 기재되어 있는 내용의 맥락을 파악하여 유사성과 차이점을 구분하고 출판사마다 서술하는 방식이 서로 상이함을 보완하기 위하여 앞서 제시하였던 분석 기준을 통해 청소년의 노동과 관련한 내용의 범주가 단원별로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내용의 영역에 분포된 빈도를 확인 할 수 있도록 설정 하였다. 교과서의 내용을 형식적으로 구분하기 위해 ‘본문’, ‘자료’, ‘사례’, 탐구’로 기준을 나누었으며 그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본문’은 교과서에서 학생들에게 학습을 위한 사실, 지식, 이론과 현상을 설명하고 있으며 이는 대부분의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 본문의 내용만으로는 단어의 의미, 내용의 이해를 위한 배경 지식, 추가적인 설명 등 많은 부분을 나타내기에는

한계가 있기에 이들은 자료, 사례, 활동을 통해 부연 설명된다. 본문의 소단원과 그 아래 제목을 통해 핵심어, 주제와 대표되는 개념을 개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통합사회’ 비상교육은 IV. 인권 보장과 헌법, 3. 인권 문제의 양상과 해결의 대단원, 중단원 아래 1. 국내 인권 문제의 양상과 해결이라는 소단원으로 나누어진 다. 국내 인권 문제의 양상과 해결이라는 소단원은 다시 청소년의 노동권 보장이라는 간략한 제목과 함께 본문이 학생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학습 목표가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게 표기되어 있다.

천재교육의 경우 대단원 IV. 인권 보장과 헌법, 중단원 3. 국내외 인권 문제와 해결 방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앞서 언급한 비상교육과는 다르게 소단원이 표기되어 있지 않다. 자세히 살펴보면 중단원 아래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 문제와 해결 방안, 청소년 노동과 관련된 인권 문제와 해결 방안으로 나누어지는데 이 부분 역시 형식은 다르지만 제목만으로도 본문에서 다루게 될 핵심 내용을 유추해 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지학사의 경우 본 연구에서 다루는 청소년의 노동과 관련된 내용이 ‘통합사회’에 서는 거의 언급되지 않았기에 소단원에 속한 제목이 주는 본문의 핵심어와 간략한 내용 이해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파악할 수 없다.

‘자료’는 예시, 문헌 발췌, 사진, 삽화, 법조항, 영화, 그래프, 연표 등으로 표현한 부분이다.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교과서는 대부분 자료라는 문구를 표시하여 명확하게 제시하였다. 다만 본문의 내용을 학습하기 위해 이해를 필요로 하는 부분에서 보충설명의 의미를 가진 부연 설명은 자료에서 제외하였으며 이는 본문에 포함하였다. 예를 들면 본문에서 ‘정치와 법’ 교과서의 비상교육 V. 사회생활과 법, 3. 근로자의 권리를 살펴보면 “「근로 기준법」에는 근로 계약과 임금, 근로 시간, 휴식 및 안전과 재해 보장 등 근로자를 보호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의 내용이 서술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교과서 본문의 가장자리를 살펴보면 연필모양의 그림과 함께 최저 임금 제도에 관한 설명이 적어져 있다. “국가가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이다. 헌법 제32조 제1항은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 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1988

년에 「최저 임금법」이 제정되었다는 표기는 실질적으로 본문을 부연 설명하는 것으로서 자료로 판단하지 않았다.

‘사례’는 ‘통합사회’와 ‘정치와 법’ 교과목의 특성상 우리 사회에서 실제로 일어난 다양한 예로 구성되어 있으며 법원의 판례, 신문 기사와 뉴스, 관련 방송 내용 등 다양하게 발췌하여 활용하고 있다. 정확한 출처가 없이 기사나 이야기의 형식으로 재구성되는 가상의 내용은 ‘사례’로 보지 않았으며 ‘자료’로 판단하였다. 예를 들어 천재교육 ‘정치와 법’ 교과서의 V. 사회생활과 법, 3. 근로자의 권리를 살펴보면 근로자의 권리 보장 제도를 설명하는 소단원이 있다. 교과서 내 관련 페이지 본문 아랫부분에 스스로 사고하기의 자료가 소개되어 있는데 근로 계약서 작성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청소년 근로자 10명 중 4명이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헤럴드경제의 2017. 7. 20. 기사 발췌는 그 표기가 자료로 제시 되어 있으나 실제 청소년들의 근로 실태에 관한 조사 내용을 기반으로 하였음에 사례로 표기 하였다.

‘탐구’는 본 연구에서 비교적 구분이 명확하다. 분석 대상의 교과서 대부분이 ‘탐구’라는 표시를 명확하게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교과서 내 본문과 자료, 사례를 통한 다양한 방식의 학습 이후 종합적인 사고를 요구하며 학생들이 본인의 생각을 적거나 정리하기, 모듈별 토론과 토의 등 고차원적인 사고를 확인하는 역할로 구성되어 있다. 앞서 말했듯이 본 연구의 교과서들은 탐구활동에 관해서는 공통된 형식이 있다. 지학사 교과서의 V. 사회생활과 법, 3. 근로자의 권리 보호, 2. 청소년 근로자의 권리를 살펴보면 탐구활동이라는 표시와 함께 청소년 근로자의 권리, 무엇을 알아 두어야 할까? 라는 의문문과 함께 본 연구의 교과서들이 모두 포함하고 있는 청소년 아르바이트 십계명의 내용이 있다. 단순히 고용 노동부의 청소년 십계명을 설명 하는 것이 아닌 그 이상으로 이 자료를 통해 학생들이 근로기준법을 참고하여 탐구활동에서 요구하는 가상의 부당한 노동계약에 대해 학생들이 대처할 수 있는 법률이나 행정적 구제 방법을 학생들 스스로 토의할 수 있게 유도하고 있다. 이런 탐구를 통해 본문의 중요한 개념을 다시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제2절 ‘통합사회’ 교과서별 근로교육 관련 내용 분석 결과

1. 천재교육

천재교육의 교과서 내용 구성은 본문과 자료, 사례와 탐구로 구성되어 있다. 교과서 점유율이 높은 편인 천재교육의 ‘통합사회’ 교과서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보통의 대단원-중단원-소단원의 구성에서 소단원을 제시하지 않고 차시별로 세분화하여 단원을 구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천재교육만의 독특한 구성으로는 도입부에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기 보다는 간단한 문제를 작은 면적을 이용하여 제시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다음은 본 논문에서 연구 분석 기준으로 삼고 있는 대단원에 대한 천재교육의 단원 구성이다.

<표4-2> 천재교육 단원구성

대단원	중단원	차시
IV. 인권 보장과 헌법	01. 인권의 의미와 변화 양상	01. 인권의 의미와 인권 확장은 역사
		02. 인권 선언문에 나타난 인권의 의미를 찾아서
		03. 현대 사회에서의 인권 확장
	02. 인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노력	01. 인권 보장을 위한 헌법의 역할과 제도적 장치
		02.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03. 우리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을 실현하는 방안을 무엇일까?
		04. 정의 실현을 위한 준법 의식
		05. 정의와 인간존엄성 실현을 위한 시민 참여
	03. 국내외 인권 문제와 해결 방안	01.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 문제와 해결 방안
		02. 청소년 노동과 관련된 인권 문제와 해결 방안
		03. 세계 인권 문제의 양상과 해결 방안
		04. 세계 여러 지역의 인권 현황을 보면?
V. 시장 경제와 금융	01. 자본주의의 발달과 시장 경제	01. 자본주의의 역사적 전개 과정과 그 특징
		02. 시장 경제에서의 합리적 선택
		03. 합리적 선택과 시장의 한계
		04. 타인을 의식하는 비합리적 소비
	02. 시장 경제의 발전과 경제	01. 시장 경제의 작동과 발전을 위한 정부의 역할
		02. 시장 경제의 발전을 위한 기업가와 노동자의 역할

	주체의 역할	03. 시장 경제의 발전을 위한 소비자의 역할
	03. 국제 분업 및 무역의 필요성과 그 영향	01. 자원, 노동, 자본의 지역 분포에 따른 국제 분업과 무역의 필요성
		02. 생산 요소의 분포가 국제 분업과 무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03. 국제 무역 확대에 따른 긍정적인 영향
		04. 국제 무역 확대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
	04. 안정적인 경제생활과 금융 설계	01.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위한 자산 관리의 필요성
		02. 금융 자산의 특징과 자산 관리의 원칙
		03. 생애 주기별 금융 설계

천재교육 IV. 인권 보장과 헌법 단원은 본문과 자료더하기, 창의 융합 활동, 사례탐구하기 등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창의 융합 활동은 그림과 도표 다양한 사례를 활용하여 넓은 면적을 구성하여 종합, 파악, 평가라는 척도를 활용해 공동체적 역량, 문제 해결 능력과 의사 결정 능력을 함양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의 유형에 따른 분포 기준을 통해 천재교육의 ‘통합사회’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는 다음과 같다.

먼저 천재교육의 IV. 인권 보장과 헌법의 구성을 살펴보면 본문과 설명, 자료와 탐구하기, 활동하기로 구성되어 있다. 학습목표의 경우 만화의 인물이 해당 차시에서 학습해야 할 내용에 관한 문제점이나 해결방안 또는 학생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 해볼 수 있는 끼리를 제공함으로써 중단원에서 내용의 전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유추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본문에 관련된 내용에서 설명이 필요하거나 이해를 돕기 위해 학생들에게 자료를 제시하는데 IV. 인권 보장과 헌법의 내용범주 중 3. 국내외 인권 문제와 해결방안에서 살펴보면 ‘장애인 의무 고용 제도’와 같이 본문의 내용을 법이나 제도에 관해 상세하게 설명하여 활용하고 있다.

천재교육 교과서에서의 ‘탐구하기’는 주제와 사례로 나누어진다. <표 4-3>을 통해 우리 연구와 관련된 중단원 03. 국내외 인권 문제와 해결방안을 살펴보면 ‘주제 탐구하기’는 2건, ‘사례 탐구하기’는 1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학생들의 근로교육에 관한 탐구하기는 사례로 활용되어 ‘청소년의 노동 인권 보장을 위한 노력

에는 무엇이 있을까?’를 통해 1건이 제시되어 있다. 관련 ‘사례 탐구하기’는 자료 2건을 제시하고 있다. 이중 다른 교과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청소년의 인권문제’외에 ‘청소년 노동 인권 상담사’를 제시하여 지학사와 비상교육이 다루지 않았던 내용을 학생들이 접근할 수 있게 하였다. 소단원과 관련하여 ‘자료’는 ‘최저임금’과 관련한 보충설명 외에 고용노동부의 ‘연도별 최저 임금’을 그래프로 나타내어 타 교과서보다 자세한 설명을 첨부하였음을 볼 수 있다.

<표4-3> 천재교육 IV. 인권 보장과 헌법 유형에 따른 분포

천재교육		IV. 인권 보장과 헌법			
유형	단원	본문	자료	사례	탐구
연소 근로자의 정의	4-1				
	4-2				
	4-3			1	
근로기준법의 개념	4-1				
	4-2				
	4-3			1	1
근로계약서의 작성	4-1				
	4-2				
	4-3	1		1	
청소년 알바 10계명	4-1				
	4-2				
	4-3	1		1	
연소자가 아닌 미성년 근로자	4-1				
	4-2				
	4-3				
최저 임금	4-1				
	4-2				
	4-3	1		1	
노동 3권	4-1				
	4-2				
	4-3	1		1	1
총합		4		6	2

‘창의+융합’활동하기는 1건이 제시되어 있고 내용 범주 안에 자료 4개가 제시되어 있으나 근로교육이 아닌 3. 국내외 인권 문제와 해결방안에 관련된 세계 여러 지역의 인권 현황 활동에 그쳐있다. 청소년 노동과 관련된 근로교육에 관한 자료는 본 연구가 제시하는 ‘근로기준법의 유형에 따른 분포 분석기준’에는 자료 없으므로 나타나지만 본문에 대한 분량 할애가 4건 이상 언급되어 있으며 ‘사례 탐구하기’범주에서 나누어지는 ‘사례’4건, ‘탐구’2건을 포함해 총 6건으로 제시되어 있다. ‘근로기준법의 유형에 따른 분포 분석기준’의 네 번째 유형인 ‘청소년 알바 십계명’의 경우 학생들의 청소년 근로권익을 주장하는 사진과 고용노동부의 출처가 함께 제시된 본문을 통해 소단원에서 학생들에게 학습목표로 이루어야 할 가치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활용 하고 있다.

천재교육의 V. 시장 경제와 금융의 중단원 2. 시장 경제의 발전과 경제 주체의 역할에서 ‘근로기준법의 유형에 따른 분포 분석기준’의 유형에 관련된 내용을 분석한 결과 관련 중단원은 앞서 IV단원과 동일하게 만화를 통한 인물의 학습목표 제시와 학생들의 생각과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중단원의 두 번째 소단원 ‘시장 경제의 발전을 위한 기업가와 노동자의 역할’을 살펴보면 본문에서 자료는 총 2건이 있으며 ‘헌법 제32조’외에 노동 3권과 관련된 자료는 ‘노동자의 3대 권리’1건의 자료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본문 자체적으로도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창의+융합’활동하기는 4건의 자료를 제시하였는데 그 중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한 독일의 노동자 평의회’의 사례를 싣고 있고 이는 4건의 자료가 관련 중단원의 기본개념의 범주에 속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고루 분포하게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체적인 개수로 비교해 보면 ‘자료 탐구하기’와 ‘사례 탐구하기’의 비중이 높으며 이는 ‘탐구활동’이 가지고 있는 내용이 많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분석의 기준을 교과서별로 표현 방식이 다름을 감안하여 앞서 언급한 분석의 기준을 적용하여 내용이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의미에 맞춰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천재교육의 교과서가 가지고 있는 탐구의 영역은 사례의 범주로 포함되어 그 개수가 6회로 가장 많이 분포가 되어 있고 이는 천재교육의 ‘통합사회’교과서가 IV. 인권보장과 헌법의 범주에 속한 사례가 지학사 2건, 비상교육 3건 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V. 시장 경제와 금융 유형에 따른 분포를 살펴볼 때 지학사와 비상교육이 노동 3권의 분석과 관련하여 사례를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천재교육이 본문 1건, 자료 1건, 사례 1건, 탐구 1건 등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4-4> 천재교육 V. 시장 경제와 금융 유형에 따른 분포

천재교육		V. 시장 경제와 금융			
유형	단원	본문	자료	사례	탐구
연소 근로자의 정의	5-1				
	5-2	1			
	5-3				
	5-4				
근로기준법의 개념	5-1				
	5-2				
	5-3				
	5-4				
근로계약서의 작성	5-1				
	5-2				
	5-3				
	5-4				
청소년 알바 10계명	5-1				
	5-2				
	5-3				
	5-4				
연소자가 아닌 미성년 근로자	5-1				
	5-2				
	5-3				
	5-4				
최저 임금	5-1				
	5-2				
	5-3				
	5-4				
노동 3권	5-1				
	5-2	1	1	1	1
	5-3				
	5-4				
총합		2	1	1	1

<그림4-1> 천재교육 ‘청소년 알바 10계명’

청소년 아르바이트에서 인권 보장을 위해 알아야 할 10가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만 15세 이상이어야 근로가 가능해요. 2. 부모님 동의서와 나이를 알 수 있는 증명서가 필요해요. 3. 근로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해요. 4. 청소년도 성인과 동일한 최저 임금을 적용받아요. 5. 하루 7시간, 일주일에 35시간 넘게 일할 수 없어요. 6. 휴일에 일하거나 초과 근무를 했을 때는 50%의 가산 임금을 받을 수 있어요. 	<ol style="list-style-type: none"> 7. 일주일을 개근하고 15시간 이상 일을 하면 하루의 유급 휴일을 받을 수 있어요. 8. 청소년은 위험한 일이나 유해 업종의 일을 할 수 없어요. 9. 일을 하다 다치면 산재 보험으로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10. 상담은 청소년 근로권익센터의 1644-3119로 전화하세요. - 고용노동부, 《청소년 알바 십계명》 -
--	---

위의 <그림4-1>은 천재교육의 ‘청소년 알바 10계명’이다. 고용노동부가 제공하는 10가지 내용은 그대로 제시하고 있다. 다만 해석 없이 10계명만을 제시하여 유해 업종과 유급 휴일, 가산 임금 등의 개념을 학생들이 명확하게 알 수 없다는 단점이 있을 수 있다.

2. 지학사

지학사의 교과서의 내용 구성은 본문 구성을 기본으로 자료와 사례를 그림을 통해 보는 사회와, 사진을 통해 보는 사회로 제시하고 있다. 탐구활동은 스스로 탐구하기로 다양한 자료를 제시하고 자료를 분석하는 간단한 문항을 구성하여 제시하고 있다. 지학사만의 독특한 구성으로는 소단원의 종료 후 통합 주제 탐구를 제시하여 모듈활동을 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토론과 토의 학습, 비판적 사고력 및 창의성 함양에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지학사 교과서의 단원 내용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표4-5> 지학사 단원구성

대단원	중단원	소단원
IV. 인권 보장과 헌법	1. 인권의 의미와 현대 사회의 인권	01. 인권의 의미와 변화
		02. 현대 사회의 인권
	2. 인권 보장을 위한	01. 인권 보장과 헌법의 역할

	헌법의 역할과 시민 참여	02. 준법 의식과 시민 참여
	3. 인권 문제의 양상과 해결 방안	01. 인권 문제의 양상 02. 인권 문제의 해결 방안
V. 시장 경제와 금융	1. 자본주의와 합리적 선택	01. 자본주의의 전개 과정과 특징
		02. 합리적 선택의 의미와 한계
	2. 시장 경제의 발전을 위한 참여자의 역할	01. 시장의 기능과 한계
		02. 시장 경제의 참여자의 바람직한 역할
	3. 국제 분업과 무역의 확대	01. 국제 분업과 무역의 필요성
		02. 무역의 확대와 그 영향
	4. 안정적인 경제생활과 금융 설계	01.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위한 자산 관리
		02. 생애 주기별 특성과 금융 설계

지학사는 생각 펼치기를 통해 소단원 시작에 배울 내용을 미리 환기 시킬 수 있도록 구체적인 만화를 제시하여 중학교 사회 2에서 배운 내용에 대한 상기를 시켜 주고 있다는 점도 특징적이다.

지학사의 통합사회 교과서는 IV. 인권 보장과 헌법의 대단원과 3. 인권 문제의 양상과 해결방안의 중단원으로 구성되어진다. 중단원은 ‘생각 펼치기’와 ‘꼭꼭! 자기 점검’이라는 도입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그림만으로 관련 단원의 주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입부의 삽화와 학생들의 생각과 의견 말하기, 발표해보기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학습목표와 연계될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다. 중단원의 기본 개념인 여성, 아동, 장애인, 외국인 노동자 등 우리 사회의 소외 계층과 사회적 소수자들의 인권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차별의 유형’이라는 삽화를 통해 이끌고 있으며 본 연구의 청소년들이 일을 하면서 보장받아야 할 권리 및 관련 법규를 국내 인권의 하위 문제로 설명하여 청소년 노동권을 언급하고 있다. 타 교과서가 간단한 그림이나 글을 통해 도입부의 분량을 비교적 적게 나타낸 것에 비해 지학사의 경우 차별적으로 교과서 한 페이지의 분량으로 도입부를 설명하고 있다.

IV단원을 분석해보면 앞서 언급한 ‘차별의 유형’에 관해 국가, 성별, 민족, 장애, 인종, 나이, 사회적 신분, 임신과 출산, 외모와 신체 조건을 그림으로 표현하

여 학생들에게 제시된 그림의 차별의 유형 중 가장 심각한 차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위와 같은 차별이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를 질문함으로써 전반적인 차별에 관한 질문을 함으로써 학습 도입을 하고 있다. 특히 ‘꼭꼭! 자기 점검’을 통해 중학교 과정의 사회 2 과목의 대단원 IX. 인권 보장과 헌법의 인권 침해와 구제 단원과 연계하여 학생들이 학습 전개 과정과 단원의 구조를 파악하고 학습 전개 과정을 바탕으로 나의 학습 목표를 세울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표4-6> 지학사 IV. 인권 보장과 헌법 유형에 따른 분포

지학사		IV. 인권 보장과 헌법			
유형	단원	본문	자료	사례	탐구
연소 근로자의 정의	4-1				
	4-2				
	4-3				
근로기준법의 개념	4-1				
	4-2				1
	4-3				
근로계약서의 작성	4-1				
	4-2				
	4-3			1	
청소년 알바 10계명	4-1				
	4-2				
	4-3	1		1	
연소자가 아닌 미성년 근로자	4-1				
	4-2				1
	4-3				
최저 임금	4-1				
	4-2				
	4-3				1
노동 3권	4-1				
	4-2				
	4-3	1			
총합		2		2	3

지학사의 IV. 인권 보장과 헌법의 내용구성은 본문과 자료, 사례, 탐구로 구성되어 있다. 중단원 3. 인권 문제의 양상과 해결 방안은 소단원 1. 인권 문제의 양상과 2. 인권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의 ‘근로기준법의 유형에 따른 분포 분석기준’으로 분석해본 바 IV단원의 본문 2건, 사례 2건, 탐구 3건과 함께 V단원에서 본문 1건, 자료 1건, 탐구 1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문을 살펴보면 지학사의 경우 청소년의 근로와 관련된 교육 내용이 독자적으로 본문에 편성되어 있지 않으며 중단원 ‘3. 인권 문제의 양상과 해결방안’의 하위 소단원 ‘1. 인권 문제의 양상’에 국내 인권 문제는 무엇일까? 범주에 속해 있으며 이는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고 있으며 인권 침해가 계속 발생되고 있음을 예를 들어 이주 외국인이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이 일한 만큼의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기도 한다.

또한 장애인은 노동권, 이동권 등과 같은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는 본문의 내용처럼 노동권이라는 단어 자체의 언급 한번과 노동권이 무엇인지 본문 추가 설명한 자료의 형식으로 제시하고 있다. 지학사의 노동권에 대한 추가 자료는 노동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 노동할 기회를 사회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앞서 분석한 천재교육의 사례와 비교했을 때 그 설명이 법적, 제도적 근거나 자세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지학사는 대단원 IV에서 인권과 관련하여 자료 1건, 사례 1건, 탐구 4건이 추가되어 구성된다. ‘국가 인권 위원회’에 관한 자세한 분석을 위해 사진과 함께 설립 목적, 위원회의 성격을 세분화하여 제시하는 ‘플러스 더 알아보기’가 자료로서 1건 제공 소개되었다. 이 중 청소년의 근로교육과 관련하여 ‘사례를 통해 보는 사회’ 청소년 아르바이트, 이것만은 꼭! 을 통해 고용 노동부의 ‘청소년 아르바이트 10계명’과 청소년 노동권 침해와 관련하여 자신의 경험이나 친구의 경험 사례를 이야기해 보자고 제시했다. 이외에는 ‘스스로 탐구하기’를 통해 탐구활동과 관련된 자료 2건을 제시하고 세계 인권 문제를 이해하기, ‘함께 탐구하기’활동을 이용하여 다양한 인권 지수를 활용한 인권 지도 만들기, 인터넷으로 찾아보는 국제 인권 기구에 관해 그들의 기구가 한 일을 검색하고 해당 누리집에 들어가서 주요 활동과 정보를 탐색한 후 발표할 수 있게 구성하였다.

모둠이 함께 하는 ‘통합 주제 탐구’는 학교생활과 관련된 인권과 학교생활에서 보장되어야 할 인권을 학생들이 토의할 수 있게 제시하고 상황극을 해 봄으로써 문제 상황을 표현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대단원의 마무리에 앞서 인권을 지켜 낸 사람들에 관해 테레사 수녀, 넬슨 만델라 대통령, 마틴 루서 킹, 말랄라 유사프자이, 마하트마 간디에 관한 이야기를 풀어낸 ‘희망이 자라는 범교과 교실’을 구성하여 인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사람들 중 가장 인상 깊은 인물이 누구인지 말해보고, 자신은 인권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말해 보는 내용을 신었다. 분석 결과 지학사의 경우 타교과서보다 다양한 탐구 활동을 제시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림4-2> 지학사 ‘청소년 알바 10계명’

사례를 통해 보는 사회

청소년 아르바이트, 이것만은 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근로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함 2. 성인과 동일한 최저 임금을 적용받아야 함 3. 원칙적으로 만 15세 이상 청소년만 근로 가능함 4. 위험한 일이나 유해한 업종의 일은 할 수 없음 5. 하루 7시간, 일주일 40시간 이상 일할 수 없음 6. 휴일 근무·초과 근무 시 50%의 가산 임금을 받을 수 있음 7. 일주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개근했을 때 하루 유급 휴일을 받을 수 있음 	<ol style="list-style-type: none"> 8. 사업주는 아르바이트생의 부모님 동의서와 가족 관계 증명서를 비치해야 함 9. 일하다 다쳤다면 관련 법에 따라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음 10. 부당한 처우나 공정한 사항에 대한 상담은 청소년 근로권익 센터에 문의할 수 있음☎ 1644-3119 <p style="text-align: right;">- 고용 노동부</p>
---	--

참고 청소년 노동권 침해와 관련하여 자신의 경험이나 친구의 경험 사례를 이야기해 보자.
 [예시 답안] 편의점에서 3주 정도 일하고 그만둔다고 말했더니, 한 달을 못 채웠으니 돈을 안주겠다고 해서 아르바이트비를 못 받은 적이 있다.

<그림4-2>는 지학사에서 제시한 ‘청소년 알바 10계명’이다. 천재교육과 마찬가지로 특별히 내용에 대한 부연 설명 없이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10계명의 내용을 그대로 제시했다. 천재교육과의 차이점은 간단한 확인 문제를 제시하여 학생이 친구와 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끼리를 제공했다는 점이다. 다만 학생들이 모호하게 생각할 수 있는 개념을 명확히 제시해 주지 않아 이 부분에 대해 수업을 하는 교사의 추가 설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스스로 탐구하기’, ‘함께 탐구하기’, ‘모둠 통합 주제 탐구’, ‘희망이 자라는 범교과 교실’등 다양한 탐구활동은 IV. 인권 보장과 헌법을 이해하는데 충분한 설명으로 볼 수 있으나 청소년의 근로 교육과 관련된 노동 인권 문제에 관해서는 본문의 내용조차 없다고 볼 수 있다. 예시로 나온 노동권이라는 단어로는 교과서를 통해 학습해야 하는 학습자들로서는 청소년 자신이 근로자로서 가지는 권리에 대해서 근로계약서, 최저 임금, 노동 3권 등 다양한 권리에 대한 학습에 대해서 교육받지 못하게 되는 실정이다.

지학사는 다른 교과서에서 자세히 언급하지 않는 인권감수성과 같은 개념이나 인권의 가치와 태도에 관해 포괄적 학습을 제공하는 반면 사회적 소수자에 관한 차별적 내용, 특히 청소년 노동에 관해 타 교과서에 비해 그 비중이 매우 적게 언급되었다.

지학사의 V. 시장 경제와 금융의 중단원 2. 시장 경제의 발전을 위한 참여자의 역할을 살펴보면 ‘생각 펼치기’와 ‘꼭꼭! 자기 점검’의 도입 부분을 거쳐 소단원 2. 시장 경제 참여자의 바람직한 역할에서 노동 3권과 관련된 내용을 찾을 수 있다. 먼저 소단원 3은 자료 3건, 사례 1건, 탐구 2건으로 구성 되어 있는데 자료는 ‘플러스 더 알아보기’를 통해 정부의 역할에 대한 헌법 규정과 시장 경제의 발전을 위한 정부의 노력, 국민 경제의 흐름으로 언급되어 지며 자료 부분에서 근로와 관련된 교육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신문을 통해 보는 사회’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기업 실적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신문 기사를 통해 학생들이 ‘ISO 26000’의 7가지 기본원칙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구체적인 지침을 서로 의견을 나누어 볼 수 있게 하였다. ‘스스로 탐구하기’는 합리적 소비와 윤리적 소비에 관해 설명하였다.

지학사는 IV단원뿐 아니라 V 단원에서도 청소년의 인권과 노동에 관한 포괄적인 교육뿐만 아니라 시장경제에서의 근로자와 관련된 근로자의 권리, 노동3권 등 전반적으로 본문 자체에서 언급이 거의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인권과 관련된 내용에 관해 다소 학생들이 학습하기 어려운 주제에 관해 다양한 활동하기와 탐구활동을 통해 이해를 도왔다는 점이 장점인 반면 앞서 지적했듯이 청소년의 근로 교육에 관한 내용이 본문에서 설명조차 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근로자의 권리와 노동에 관한 교육이 학생들에게는 꼭 필요한 만큼 학습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실제

사례에 적용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의 사례를 신거나 공감할 수 있는 자료를 탐구나 활동하기 파트에 제시하여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다른 교과서와의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표4-7> 지학사 V. 시장 경제와 금융 유형에 따른 분포

지학사		V. 시장 경제와 금융			
유형	단원	본문	자료	사례	탐구
연소 근로자의 정의	5-1				
	5-2				
	5-3				
	5-4				
근로기준법의 개념	5-1				
	5-2				
	5-3				
	5-4				
근로계약서의 작성	5-1				
	5-2				
	5-3				
	5-4				
청소년 알바 10계명	5-1				
	5-2				
	5-3				
	5-4				
연소자가 아닌 미성년 근로자	5-1				
	5-2	1			1
	5-3				
	5-4				
최저 임금	5-1				
	5-2		1		
	5-3				
	5-4				
노동 3권	5-1				
	5-2				
	5-3				
	5-4				
총합		1	1		1

3. 비상교육

비상교육의 교과서는 본문과 생활 속 이야기, 알아보까요?, 생각을 키우는 활동, 주제 들여다보기 등을 활용하여 내용을 진술하고 있다. 타 교과서와 다르게 가장 많은 사진 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 수업 시작의 상기 활동으로 생활 속 이야기를 모두 사진 자료를 활용해 학생들이 수업 내용에 대해 미리 인지 할 수 있다는 부분이다. 주제 들여다보기 활동은 그 소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고 생각되는 주제를 구체화 하여 많은 면을 차지하고 제시하며 대단원이 끝날 때에는 직소 2와 같은 모형을 활용한 모둠활동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은 자료를 수록하였다. 이 논문의 분석 범위인 비상교육의 단원구성은 다음과 같다.

<표4-8> 비상교육 단원구성

대단원	중단원	소단원
IV. 인권 보장과 헌법	1. 인권의 의미와 변화양상	01. 인권은 어떤 과정을 거쳐 발달해 왔는가?
		02. 어떠한 인권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가?
	2. 헌법의 역할과 시민 참여	01. 헌법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02. 준법 의식과 시민 참여는 왜 필요할까?
	3. 인권 문제의 양상과 해결	01. 국내 인권 문제의 양상과 해결
		02. 세계 인권 문제의 양상과 해결
V. 시장 경제와 금융	1. 자본주의의 전개 과정과 합리적 선택	01. 자본주의는 어떻게 전개되었을까?
		02. 합리적 선택의 의미와 한계
	2. 시장 경제와 경제 주체의 역할	01. 시장 경제에는 어떤 한계가 있을까?
		02. 시장 경제를 위해 필요한 시장 참여자의 역할
	3. 국제 무역의 확대와 영향	01. 국제 거래는 왜 발생할까?
		02. 국제 거래의 확대에 의한 영향
	4. 자산 관리와 금융 생활	01. 다양한 금융 자산과 합리적인 자산 관리
		02. 생애 주기와 금융 생활의 설계

비상교육은 대단원과 중단원, 소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천재교육이 소단원을 구성하지 않고 중단원에서 단원별 주제로 본문을 바로 시작하는 점과는 차별된다.

지학사는 비상교육과 같은 대단원, 중단원, 소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단원의 도입 부분에 지학사의 ‘생각 펼치기’와 ‘꼭꼭! 자기 점검’은 비상교육의 ‘생활 속 이야기’, ‘학습 계획하기’와 비교적 비슷한 형태의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들 두 교과서는 타 교과서에 비해 도입부의 분량이 많고 문제점을 제기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연계된 주제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으로 볼 수 있다.

비상교육 역시 청소년의 근로와 관련된 내용은 ‘IV. 인권 보장과 헌법’이라는 대단원을 통해 학습할 수 있다. 중단원 ‘3. 인권 문제의 양상과 해결’은 소단원 ‘1. 국내 인권 문제의 양상과 해결’, ‘2. 세계 인권 문제의 양상과 해결’로 단원이 구성되어 있다. 이와 같은 비상교육의 교과서 구성방식을 살펴보면 대단원에서 나타내고 있는 ‘질문으로 시작하기’를 통해 그림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질문으로 도입하고 있다. 중단원의 도입부는 ‘생활 속 이야기’라는 타이틀 아래 사진과 글을 통해 자료를 제시하였고 ‘학습 계획하기’를 포함하여 도입부를 완성하였다. 중단원 3을 전반적으로 분석한 결과 본문과 본문의 단순한 이해를 돕는 설명의 역할을 하는 자료는 모두 본문으로 해석하였다.

예를 들어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 보장’의 본문 내용 중 국가 인권 위원회와 관련하여 학생들에게 온라인 사이트 주소를 제공, 고용 노동부와 대한 법률 구조공단 역시 인터넷 주소와 함께 청소년 근로 권익 센터의 대표 번호를 제공하고 사이버 상담실을 소개하는 내용은 이 분석에서 모두 자료가 아닌 본문의 내용으로 해석하였다. 이외에 사진을 통한 자료와 ‘알아볼까요?’ 자료는 3건, ‘교실 밖 생생체험’은 ‘사례’로 1건, 소단원의 도입부분으로 볼 수 있는 ‘생각을 열며’와 비판적 사고력+공동체적 역량을 위한 ‘생각을 키우는 활동’, ‘주제 들여다보기’, ‘통합적 사고력 쑥쑥!’은 탐구로 분류하였다.

이들 탐구는 총 6건이다. 중단원의 학습을 마무리 하는 ‘스스로 정리하기’와 ‘단원 매듭 짓기’의 경우 이는 앞서 본 천재교육의 ‘정리하기’, 지학사의 ‘대단원 마무리’와 마찬가지로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중단원 3의 전반적인 분석 결과와 함께 본 연구에 적합한 ‘근로기준법의 유형에 따른 분포 분석기준’과 관련하여 비상교육이 풀어낸 내용 형식이 일치하는 개수는 다음과 같다. 대단원 IV의 3. 인권 문제의 양상과 해결에서 본문 6건, 사례 3건, 탐구 5건이며 대단원 ‘V. 시장 경제

와 금융'의 본문 3건, 자료 1건으로 분석되었다.

<표4-9> 비상교육 IV. 인권 보장과 헌법 유형에 따른 분포

비상교육		IV. 인권 보장과 헌법			
유형	단원	본문	자료	사례	탐구
연소 근로자의 정의	4-1				
	4-2				
	4-3				1
근로기준법의 개념	4-1				
	4-2				
	4-3	1			1
근로계약서의 작성	4-1				
	4-2				
	4-3	1		1	1
청소년 알바 10계명	4-1				
	4-2				
	4-3				1
연소자가 아닌 미성년 근로자	4-1				
	4-2	1			
	4-3	1		1	
최저 임금	4-1				
	4-2				
	4-3	1			1
노동 3권	4-1				
	4-2				
	4-3	1		1	
총합		6		3	5

이는 비상교육의 내용 형식이 다른 교과서에 비해 본문의 해석이 가장 많이 설명되어 있으며 그 구성 분포 역시 일곱 개의 유형 중 '연소 근로자의 정의'외에 여섯 개 군이 모두 포함됨으로서 가장 다양하게 분포 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제외된 '연소 근로자의 정의' 역시 '탐구'활동을 통해 본문 외에서 설명하고 있다. 이는 청소년의 근로 교육과 관련한 학습 내용에 관해 비상교육이 고등학교의 다양한 '통합사회' 교과서 중 사회과 교육이 목표로 하는 2015 개정 교육과정 통합사회 성취 기준에 가장 근접한 목표로 구성되어졌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탐구’활동이 천재교육 2건, 지학사 3건과 비교하여 5건을 소개했다는 점에서 학생들에게 청소년 근로 교육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예로 볼 수 있다. 중단원 도입 부분의 ‘생활 속 이야기’와 ‘학습 계획하기’에서 손목 활용형 기포 용구와 지방 선거의 안내서가 다양한 언어로 제공되어지지 않는 점 등이 우리 사회의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배려가 없음을 보여주며 이들의 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함을 보여준다. 이는 선거가 현재로서는 청소년이 참여할 수 없음을 청소년 노동으로의 학습 연계가 자칫 되지 않을 수 있으나 ‘학습 계획하기’를 통해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청소년의 노동권 침해도 해당하며 이는 국내 인권 문제와 관련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본 단원이 학습 목표로 제시하는 부분을 연계되어질 수 있게 소개해준다.

소단원 1의 국내 인권 문제의 양상과 해결의 도입부분 ‘생각을 열며’는 ‘불편해도 괜찮아’라는 국가 인권 위원회에서 기획한 책을 소개하며 이 책이 80여 편의 영화와 드라마, 다큐멘터리를 소개하고 있으며 그 내용이 우리의 인권이 침해되는 문제점을 다양하게 다루고 있음을 소개하고 있다. 비상교육의 소단원 도입부에 탐구활동을 제시한 부분은 천재교육과 지학사가 단순히 그림 삽화나 만화 캐릭터들간의 대화 내용을 교과서의 본문과 연계시켜 학생들이 소단원에서 다룰 주제를 미리 생각해보고 본인의 의견을 말해 보는것과는 차별화되게 실제의 사례, 사진, 사건 등 다양한 관심사를 흥미롭게 제시하고 있다.

이어 비상교육의 교과서는 ‘청소년의 노동권 보장’이라는 독립적인 주제로 본문이 구성되어 있는데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등이 언급되고 있으며 특히 노동권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을 자세히 다루고 있다. 우리 연구의 ‘근로기준법의 유형에 따른 분포 분석기준’에 따라 본문 내에서 근로기준법에 관한 개념과 보충 설명, 최저 임금, 청소년의 노동권이 직접적으로 설명되어 있으며 ‘알아볼까요’의 탐구 활동을 통해 ‘청소년 노동권 침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를 다루고 있다.

이는 근로 계약서의 작성 시 근로 계약서에 기재된 업무와 다른 일을 하게 될 때 이를 거부 할 수 있으며 계약서상의 근로 조건과 다를 경우 즉시 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알려준다. 또한 의무적 근로 교육은 근로 시간으로 포함되기에 임금을 받아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거나 거부한 경우 고용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음을 학습자들에게 설명해준다.

<표4-10> 비상교육 V. 시장 경제와 금융 유형에 따른 분포

비상교육		V. 시장 경제와 금융			
유형	단원	본문	자료	사례	탐구
연소 근로자의 정의	5-1				
	5-2				
	5-3				
	5-4				
근로기준법의 개념	5-1				
	5-2	1			
	5-3				
	5-4				
근로계약서의 작성	5-1				
	5-2				
	5-3				
	5-4				
청소년 알바 10계명	5-1				
	5-2				
	5-3				
	5-4				
연소자가 아닌 미성년 근로자	5-1				
	5-2	1			
	5-3				
	5-4				
최저 임금	5-1				
	5-2	1			
	5-3				
	5-4				
노동 3권	5-1				
	5-2		1		
	5-3				
	5-4				
총합		3	1		

천재교육의 ‘사례 탐구하기’에 ‘청소년의 노동 인권 보장을 위한 노력에는 무엇이 있을까?’와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으며 이는 두 교과서 모두 자세히 다루고 있

다. 반면 지학사의 경우 청소년의 노동권 침해에 관한 내용은 언급되어 있지 않다. 비상교육은 소단원 1의 마무리 장에 ‘주제 들여다보기’를 통해 ‘소중한 노동권을 지키기 위한 근로 계약서 작성’을 소개했다. 이는 2015년 한국 청소년 정책 연구원의 조사에 따라 중·고등학생의 약 12.2%가 근로를 한 경험이 있으며, 이들 중 28.6%만이 근로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한 경험이 있다는 소개와 함께 학생들에게 그들이 청소년으로서 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할 때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특히 타 교과서에서는 볼 수 없는 ‘연소 근로자’가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를 가리킨다는 점을 교과서에 기재한 유일한 교과서이다.

천재교육과 지학사가 청소년 알바 10계명을 통해 원칙적으로 만 15세 이상 청소년만 근로가 가능하다고 언급한 것과는 다르게 연소 근로자의 정의를 명확하게 했다는 점이다. 또한 청소년이 노동 근로를 함에 있어 노래방과 게임방, 오락실, 술을 만들거나 짐승을 죽이는 등 청소년이 근로하기에 위험하고 유해한 업종은 근무할 수 없음을 설명해준다.

또한 청소년 아르바이트 10계명에서 청소년은 하루 7시간, 일주일에 35시간을 넘게 일을 할 수 없으며 휴일에 일을 하거나 초과 근무를 하게 되면 50%의 가산된 임금을 받게 된다. 일주일을 개근하여 근무하고 15시간 이상의 일을 하게 될 때 하루의 유급 휴일을 받을 수 있음을 설명하는데 그치나 비상교육은 ‘주제 들여다보기’를 통해 청소년의 동의하에 하루 1시간, 일주일 5시간의 한도로 연장 근무를 할 수 있다는 사실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은 1시간 이상 휴게 시간을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안에 제공해야 함을 소개한다. 임금은 성인과 동일하게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아 정해진 날짜에 현금, 통장 입금으로 제공받아야 하며 일을 할 때 부모님의 동의서, 주민 등록 등본이나 가족 관계 증명서와 같이 나이를 제시 할 수 있는 증명서가 필요함도 학습시켜준다.

비상교육은 탐구활동을 통해 연소 근로자의 근로계약서를 학생들이 가상의 상황에서 직접 작성해 볼 수 있는 활동도 제공한다. 부당한 대우에 대해 ‘고용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도록 교과서에 인터넷 주소와 함께 청소년 근로 권익 센터의 대표번호를 직접 제시하였고 노동에 관한 다양한 분야의 구제를 받기 위해 ‘대한 법률구조공단’ 역시 그들이 하는 역할과 인터넷 주소를 소개하였다. 이외에 교과서 내용을 살펴보면 ‘인권 교육 센터’, ‘헌법 재판소’, ‘국민 권익 위원회’역시 소개되어

학습자들에게 각 기관을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그림4-3> 비상교육 ‘청소년 알바 10계명’

2015년 한국 청소년 정책 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중·고등학생 중 약 12.2%가 근로 경험이 있는데, 이 중 28.6%만 근로 계약서를 작성한 경험이 있다고 대답하였다. 다음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서 청소년이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 유의 사항에 대해 알아보자.

01 근로할 수 있는 곳인지 확인하자.
청소년은 노래방, 게임방, 오락실, 짐승을 죽이는 일, 술을 만드는 일 등 청소년에게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종의 일은 할 수 없습니다.

02 근로 시간을 확인하자.
원칙적으로 하루에 7시간, 일주일에 35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습니다. 다만, 청소년의 동의하에 하루에 1시간, 일주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03 휴게 시간을 확인하자.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 시간이 4시간 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근로 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다만, 휴게 시간은 근로 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04 유급 휴일을 받을 수 있다.
일주일을 개근하고 15시간 이상 일을 하면 하루의 유급 휴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소 근로자(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 근로 계약서

이○○ (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김△△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 계약을 체결한다.

- 계약 기간: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 근무 장소: ○○ 빵집 ▶ 빵집은 청소년에게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종이 아니므로 청소년이 근무할 수 있다.
- 업무 내용: 제품 진열 및 계산, 사업장 청소
- 근로 시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휴게 시간: 12시 00분 ~ 13시 00분)
▶ 휴게 시간을 제외한 하루 근로 시간이 5시간이므로 적절하며, 휴게 시간도 1시간으로 문제가 없다.
- 근무일 / 휴일: 매주 6일 근무 / 유급 휴일 매주 일요일
▶ 2020년 최저 임금인 8,590원보다 많으므로 적절하다.
- 임금: ▶ 2020년 최저 임금인 8,590원보다 많으므로 적절하다.
 - 시급: 9,000원(2020년 최저 임금 8,590원)
 - 임금 지급일: 매월 25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 방법: 근로자 명의의 예금 통장에 입금
- 가족 관계 증명서 및 동의서
 - 나이를 알 수 있는 증명서 제출 여부: ○
 -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 구비 여부: ○

05 임금은 정해진 날짜에 사용 가능한 돈으로 받아야 한다.
임금은 성인과 동일한 최저 임금을 적용 받습니다. 사용자는 매월 일정한 날짜에 임금을 주어야 하고, 반드시 청소년에게 직접(현금 또는 통장 입금) 주어야 합니다. 또한 상품권, 쿠폰 등이 아닌 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동 교과서 V. 시장 경제와 금융에서 중단원 2. 시장 경제와 경제 주체의 역할을 살펴보면 근로기준법과 관련한 내용은 소단원 2. 시장 경제를 위해 필요한 시장 참여자의 역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노동 3권에

대해 소개하고 있으며 이는 본문의 내용 외에 본문의 내용을 보충 설명하는 ‘최저 임금 위원회’에 관한 인터넷 주소와 위원회가 하는 일에 대한 소개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으로 ‘노동 3권’이 단결권과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의미를 설명하는 자료 1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단원에서는 ‘노동자의 역할’에 대해 본문을 통해 설명하며 특히 노동 3권을 매우 자세히 서술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의 목적인 청소년들로 하여금 청소년 근로 노동 교육과 관련한 학습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 비상교육의 ‘통합사회’ 교과서는 대단원 4, 5를 합산하여 본문 9건, 자료 1건, 사례 3건, 탐구 5건 등 타 교과서에 비해 유형에 따른 분석 결과 전체적으로 일곱가지 유형이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그 개수 또한 타 교과서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제3절 ‘정치와 법’ 교과서별 근로교육 관련 내용 분석 결과

‘정치와 법’은 고등학교 2, 3학년들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위해 선택하는 과목으로 교과서의 그 진술 내용 자체는 현행 법률의 대부분의 개념을 담고 있는 방대한 양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근로기준법 관련 내용에 있어서도 대부분의 교과서가 별도의 소단원 하나의 분량을 제시하는 등 앞서 분석했던 ‘통합사회’의 양과 질에서 많은 차이를 보인다.

1. 천재교육

천재교육은 본문과 생각열기, 자료, 활동으로 그 내용을 진술하고 있다. 앞서 분석한 천재교육의 ‘통합사회’가 소단원을 없애고 차시별 제시를 했던 것과는 다르게 소단원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같은 출판사라 하더라도 집필자의 의도와 선호에 따라 다른 구성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천재교육의 ‘정치와 법’은 근로자의 권리를 생각열기를 통해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을 제시하였으며 자료와 활동을 통해 근로계약서, 통상임금,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 등 다양한 제시문을 담고 있다. 개인적인 견해로 활동 중심의 내용보다는 지식 전달에 더 효과적인 구성방식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천재교육교과서는 대단원, 중단원, 소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단원 ‘V. 사회생활과 법’의 중단원 ‘3. 근로자의 권리’, 소단원 ‘1. 근로자 권리의 의의’, ‘2. 근로자의 권리 보장 제도’로 구성되어 있다. 천재교육의 근로자의 권리 관련 단원 구성은 다음과 같다.

<표4-11> 천재교육 단원구성

대단원	중단원	소단원
V. 사회생활과 법	1. 형법의 의의와 기능	01. 형법과 죄형 법정주의
		02. 범죄의 성립 요건
		03. 형벌의 의의와 종류
	2. 형사 절차와 인권 보장	01. 형사 절차의 인권 보장 원칙

3. 근로자의 권리	02. 형사 절차의 인권 보장제도
	01. 근로자 권리의 의의
	02. 근로자의 권리 보장제도

천재교육의 교과서는 중단원 ‘생각열기’로 학습할 부분을 제시한다. 이는 바이마르 헌법의 조항을 인용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헌법으로 규정하고 보호하는 이유와 이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볼 수 있도록 묻는다. 이는 바이마르 헌법을 자료로 구성되었다고 보고 이와 같은 자료는 ‘스스로 사고하기 자료’의 ‘헤이마켓 사건과 근로자의 날’, ‘근로 계약서 작성의 중요성’, ‘실업 급여’, ‘일·가정 양립 제도’의 4건, 본문을 보충 설명하는 자료로서 ‘임금 체납 시 구제 절차(고용노동부)’, ‘부당 해고 시 구제 절차(고용노동부)’의 2건으로 구성되어 중단원 3의 자료는 총 7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스스로 탐구하기 활동’의 ‘아동 노동자는 법적으로 어떤 보호는 받고 있을까?’, ‘근로 계약서 작성하기’, ‘통상임금의 범위 알아보기’,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해법은?’, ‘청소년 근로자는 근로 기준법상 어떤 보호를 받을까?’와 같이 탐구는 총 5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 ‘근로기준법의 유형에 따른 분포 분석기준’을 적용하여 살펴보면 유형 일곱 번째의 노동 3권에 대해 소단원 1의 ‘헌법상 근로자의 권리 보장’을 시작으로 본문에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이 설명되어 있다.

‘노동법의 의의’주제의 내용 범주 안에 근로 기준법과 최저 임금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 본문을 통해 소개되고 있으며 ‘스스로 탐구하기 활동’을 통해 영국 맨체스터 면화 공장의 아동 노동자들의 열병에 관한 사례와 그로 인해 세계 최초의 노동 보호법이 제정되었음을 소개하고 노동법의 꾸준한 발전으로 오늘날의 노동법 법체가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소단원 2의 본문을 통해 근로 계약서 작성과정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며 ‘스스로 사고하기’자료를 통해 우리나라의 청소년 근로자의 10명 중 4명이 근로계약서의 작성 없이 근무하고 있다는 문제점과 이들이 임금 체납, 최저 시급에 못 미치는 급여를 받고,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등 손해를 입어도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대해 신문 기사를 통해 소개하고 있다. 이는 ‘통합사회’의 경우 비상교육의 교과서에서만 볼 수 있었던 내용이다.

<표4-12> 천재교육 V. 사회생활과 법 유형에 따른 분포

천재교육		V. 사회생활과 법			
유형	단원	본문	자료	사례	탐구
연소 근로자의 정의	5-1				
	5-2				
	5-3		1		1
근로기준법의 개념	5-1				
	5-2				
	5-3	1	1		1
근로계약서의 작성	5-1				
	5-2				
	5-3	1	1		1
청소년 알바 10계명	5-1				
	5-2				
	5-3				1
연소자가 아닌 미성년 근로자	5-1				
	5-2				
	5-3	1	1		1
최저 임금	5-1				
	5-2		1		
	5-3	1			1
노동 3권	5-1				
	5-2				
	5-3	1			
총합		5	5		6

또한 ‘스스로 탐구하기 활동’의 근로 계약서 작성하기를 통해 학생들이 표준 근로 계약서 형식의 틀을 모듬 활동을 통해 작성해봄으로서 근로기준법이 제대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연습해 보는 학습을 제공한다. ‘임금’주제와 관련하여 ‘최저 임금법’에 대한 서술과 이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신고하거나 소를 제기하는 방법,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구제 방법을 소개함으로 학생들이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소개하고 있다. ‘스스로 탐구하기 활동’을 통해 신문기사의 사례를 소개하며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을 통해 통상 임금의 범위에 관한 기준을 제시한 판례를 보여준다.

대법원 종합 법률 정보의 인터넷 검색 주소를 함께 소개하여 기사에서 보여주는 판례를 찾아 볼 수 있도록 제공한다. ‘근로 계약 기간과 근로 시간’을 통해 같은 출판사인 천재교육이 출판한 ‘통합사회’에서 청소년 알바 10계명을 간단히 언급하고 부수적인 설명없이 지나쳤던 반면에 ‘정치와 법’교과서는 근로자의 근로 시간과 휴식 시간, 유급 휴일, 연차 유급 휴가 등에 관해 본문에서 자세히 기술하고 있다. 소단원의 마지막 주제인 ‘퇴직과 해고’에 관해 고용노동부의 자료를 통해 부당 해고 시 구제 절차를 소개하고 있다.

중단원 3의 마무리 부분에서 소개하는 ‘청소년 근로자는 근로 기준법상 어떤 보호를 받을까?’의 탐구 활동을 통해 근로기준법 관련 조항을 제43조(임금 지급), 제50조(근로 시간),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 인허증), 제66조(연소자 증명서), 제67조(근로계약), 제68조(임금의 청구), 제69조(근로 시간)를 개별적으로 소개하고 있으며 여기서 소개하는 관련 조항을 언급한 탐구활동만으로도 청소년의 근로 노동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포괄적으로 이해해 볼 수 있는 설명을 이해할 수 있게 제공한다.

이와 같이 천재교육의 ‘정치와 법’교과서는 ‘근로기준법의 유형에 따른 분포 분석기준’에서 제안하는 일곱가지 유형에 대해 본문 5건, 자료 5건, 탐구 6건의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있으며 이들은 각 유형별로 일곱 개 유형을 빠짐없이 모두 설명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 지학사

지학사는 본문과 나의 수준 진단하기, 생각열기, 탐구활동, 생활 속 법이야기, 주제탐구, 배운 내용 적용하기 등을 통해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다른 교과서와 다른 지학사만의 특징으로는 사진자료 보다는 그림 자료를 많이 활용하고 있다는 것과 소단원의 생각열기 제시 전에 학생 개인이 수준을 진단할 수 있는 간단한 질문이 있다. 또한 근로자의 권리에 대한 단원의 시작을 국제 노동절의 역사로 시작하고 있다는 점도 특징적이다. 지학사 역시 수능범위에 따른 방대한 양을 서술하기 위해 많은 양의 자료를 한 면에 담고 있다. 지학사의 단원구성은 다음과 같다.

<표4-13> 지학사 단원구성

대단원	중단원	소단원
V. 사회생활과 법	01. 형법의 이해	01. 형법과 죄형 법정주의
		02. 범죄와 형벌
	02. 형사 절차와 인권 보장	01. 형사 절차의 이해
		02. 형사 절차에서의 인권 보장
	03. 근로자의 권리 보호	01. 근로자의 권리 이해
		02. 청소년 근로자의 권리

지학사는 대단원 ‘V. 사회생활과 법’, 중단원 ‘3. 근로자의 권리 보호’, 소단원 ‘1. 근로자의 권리 이해’와 ‘2. 청소년 근로자의 권리’로 구성되어 있다. 지학사는 중단원 3의 도입부분에 국제 노동절이 만들어진 배경을 사진과 함께 소개하며 ‘나의 수준 진단하기’를 통해 이전에 ‘통합사회’교과를 학습함으로써 노동 삼권, 근로기준법의 주요 내용, 부당 해고와 부당 노동 행위, 근로자의 권리가 침해 되었을 때 이를 구제 할 수 있는 절차, 청소년 근로자의 권리를 알고 있는지에 대해 중단원 3에서 배울 학습내용과 연계하여 미리 도입 부분에 제시하였다.

지학사는 소단원 ‘1. 근로자의 권리’는 본문에 앞서 ‘생각열기’를 통해 단체 교섭권과 단체 행동권을 사진으로 각각 제시하고 각각의 제도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내용과 이러한 노동삼권이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야기해 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는데 이는 분석의 유형을 탐구로 지정하였다.

소단원 ‘2. 청소년 근로자의 권리’의 ‘생각 열기’에서 17살인 청소년이 아르바이트와 근로 계약을 할 때 꼭 알아야 하는 권리를 이야기 해보는 도입 부분 역시 ‘탐구’로 표기 하였다. 우선 본문은 소단원 ‘1. 근로자의 권리 이해’부분에 ‘헌법에 보장된 노동 삼권’, ‘근로자의 권리’, ‘부당 해고와 부당 노동 행위’, ‘근로자의 권리 침해 구제 방법’이 소개되어 있으며 소단원 ‘2. 청소년 근로자의 권리’의 내용 아래 ‘청소년 근로의 보호’를 소개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본문의 내용을 분석하면 ‘근로기준법의 유형에 따른 분포 분석기준’의 유형에 대해 해당 유형이 모두 본문에 언급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V. 사회생활과 법의

3. 근로자의 권리 보호는 ‘연도별 최저 임금’, ‘생활 속 법 이야기’의 정당한 해고의 요건, ‘부당 해고 및 부당 노동 행위 구제 절차’와 같이 자료 3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학사의 경우 타 교과서가 ‘사례 알아보기’와 ‘탐구하기 사례’처럼 ‘사례’를 단어로 사용하고 있는 것과 다르게 ‘탐구 활동’으로 모두 사용되고 있다.

<표4-14> 지학사 V. 사회생활과 법 유형에 따른 분포

지학사		V. 사회생활과 법			
유형	단원	본문	자료	사례	탐구
연소 근로자의 정의	5-1				
	5-2				
	5-3	1	1	1	1
근로기준법의 개념	5-1				
	5-2				
	5-3	1	1	1	1
근로계약서의 작성	5-1				
	5-2				
	5-3	1		1	1
청소년 알바 10계명	5-1				
	5-2				
	5-3				1
연소자가 아닌 미성년 근로자	5-1				
	5-2				
	5-3	1		1	1
최저 임금	5-1				
	5-2	1			
	5-3	1	1		1
노동 3권	5-1				
	5-2				
	5-3	1	1	1	1
총합		7	4	5	7

지학사의 ‘사례’는 현실에서 일어난 기사나 뉴스, 사진, 이야기를 재연하여 글로 실는 것이 아닌 허구의 가상 이야기를 만화의 인물이나 그림을 활용하여 사례로 소개하는 비율이 높으며 이는 타 교과서와 매우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실질적으로

‘사례 알아보기’를 분석 유형 설정에 따라 해석하면 사례와 탐구가 함께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탐구로 해석해야 됨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소단원 1의 ‘이런 근로 조건, 근로 기준에 부합할까?’, ‘근로자의 권리가 침해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는 탐구로 분석범위에 포함 했다. ‘수행 활동’의 ‘사용자와 근로자가 되어 근로 계약서 작성해 보기’와 ‘창의 체험’의 ‘안전교육 - 산업 재해와 근로자의 안전’도 탐구로 분석했다.

지학사 교과서는 ‘근로기준법의 유형에 따른 분포 분석기준’에 따라 해당 유형에 포함되는 분포를 종합하면 본문 7건, 자료 4건, 사례 5건, 탐구 7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지학사의 ‘통합사회’교과서가 동일 분포 분석 기준에 따른 분석결과 본문에는 일곱 개 유형의 내용과 설명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으며 단순히 노동권이라는 단어와 청소년 알바 10계명만 서술되어 있다는 점과 많은 차이를 두고 있다.

지학사는 노동삼권에 대해 천재교육과 동일하게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설명하고 있다.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천재교육이 본문에 단체행동을 할 수도 있음을 간략하게 전달한 반면 지학사는 쟁의 행위가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분쟁 시 정상적 업무를 운영할 수 없도록 방해하고 근로자는 태업과 파업, 사용자는 직장 폐쇄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또한 자료의 연도 별 최저 임금을 통해 타 교과서가 최저 임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면 안된다는 설명을 함께 그치고 있으나 지학사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의 최저 임금 변화 추이를 최저 임금 위원회, 2017년 분석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지학사는 탐구를 통해 정당한 해고의 요건을 신문 기사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해고를 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며 예고하지 않았을 때 30일분의 통상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과 이는 해고 사유와 시기, 모두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음을 ‘생활 속 법 이야기’를 통해 이야기하였다. 소단원 ‘2. 청소년의 권리’에서는 지학사의 ‘통합사회’교과서가 고용 노동부의 청소년 알바 십계명이 단순히 서술됨에 그쳤으나 ‘탐구활동’을 통해 자료를 참고하여 부당한 근로 환경에 처한 학생이 스스로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해 볼 수 있도록 제공하고 청소년 고용의 사용자로서 주의해야 하는 점이 무엇인지 토의해보는 시간을 제시하였다.

특히 ‘수행활동’을 통한 근로 계약서 작성은 실제 근로 계약서의 양식을 참고하여 모듈별로 작성하고 이를 통해 근로 기준법의 기본 개념을 다시 숙지하고 이에 위반되는 내용은 없는지 정리할 수 있는 자료를 마련해 주었다. 지학사는 ‘창의 체험’을 통해 산업 재해와 근로자의 안전에 관한 내용을 탐구 활동으로 소개했다. 이는 타 교과서에서는 다루지 않고 있는 내용으로 산업 재해가 무엇인지 개념에 대해 설명하며 업무상의 사유로 피해 발생시 근로 기준법과 산업 재해 보상 보험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가져야 하는 예방 의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3. 비상교육

비상교육의 ‘정치와 법’은 본문의 내용과 더불어 생활 속 이야기, 생각을 여는 활동, 역사나 영화 속 세상 읽기, 지식 더하기 등으로 다양한 내용을 짜임새 있게 제시하고 있다. 특히 타 교과에 비해 가장 다양하고 입체적인 자료를 많이 제시하고 있으며 앞서 분석했던 같은 출판사의 ‘통합사회’와 같이 구체적인 사진 자료를 활용한 예시를 통해 학습자의 이해를 돕도록 하고 있다. 비상교육의 해당 단원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표4-15> 비상교육 단원구성

대단원	중단원	소단원
V. 사회생활과 법	01. 형법의 이해	1. 형법과 죄형 법정주의
		2. 범죄와 형벌
	02. 형사 절차와 인권 보장	1. 형사 절차의 흐름
		2. 인권 보장을 위한 원칙과 제도
	03. 근로자의 권리	1. 노동법의 의의
		2. 법으로 보장되는 근로자의 권리

비상교육 교과서는 대단원 ‘V. 사회생활과 법’, 중단원 ‘3. 근로자의 권리’, 소단원 ‘1. 노동법의 의의’, ‘2. 법으로 보장되는 근로자의 권리’로 구성되어 있다. 비상교육의 교과서는 중단원과 소단원의 도입부에 각각 ‘생활 속 이야기’와 ‘생각을 여는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3. 근로자의 권리’의 도입부 ‘생활 속 이야기’에서는 국제 연합(UN) 세계 인권 선언의 제23조를 설명하고 있으며 전 세계가 노동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있다. 이는 근로자들의 시위를 보여주는 사진들과 법조항을 설명하는 ‘자료’로 구성되어 있으며 ‘탐구’ 활동으로 함께 분석할 수 있다.

또한 ‘생각을 여는 활동’은 소단원 1의 산업 혁명 당시 아동 노동자들의 노동 착취 부분, 소단원 2의 17세 학생의 아르바이트가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여부와 최저 임금보다 적은 시급에 대해 문제가 없는지 학생들의 자유로운 생각을 이야기 할 수 있게 제안하는 내용으로 ‘탐구’로 분석된다. 본문 외에 ‘한눈에 보는 세계 노동법의 역사’, ‘사회법’,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에 관한 권리’, ‘최저 임금 제도’, ‘단체 교섭을 진행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진, ‘부당 해고 시 구제 절차’를 나타낸 표 그림이 있다.


‘사례’로는 ‘역사 속 세상 읽기’의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에 관한 내용과 노동조합 설립의 계기가 된 역사적 사건이 된 영화 ‘몰리 맥과이어스’에 관한 이야기, ‘지식+더하기’의 청소년의 아르바이트에도 근로 기준법이 적용될까?에 관한 질문과 대답하기, ‘여기서 잠깐’의 15세 미만인 사람은 근로자로 고용할 수 없나요?에 대한 문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마지막 유형인 ‘탐구’는 앞서 설명한 도입부의 ‘생활 속 이야기’와 ‘생각을 여는 활동’의 소단원 1, 2, 근로 계약서의 작성, ‘생각을 키우는 활동’의 임금 등의 체불 시 구제 절차를 활동지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해결 방안을 찾는 방법을 묻고 있다.

종합적인 분석 결과 ‘근로기준법의 유형에 따른 분포 분석기준’을 살펴보면 일급 가지 유형에 대해 비상교육 교과서는 본문 7건, 자료 6건, 사례 7건, 탐구 1건으로 분석된다. 소단원 1의 소주제 ‘노동법은 어떤 배경에서 등장하였을까’를 살펴보면 타 교과서와 차별화된 부분으로 노동법이 등장하게 된 배경에 대해 설명되어 있다는 점이다.

‘한눈에 보는 세계 노동법의 역사’를 연도별로 정리하여 17-18세기 산업 혁명이

시작 되어 1919년 국제 노동 기구(ILO)가 결성되는 과정을 정리하여 보여주는 자료'를 통해 본문 내용을 보충하였다. 또한 노동법이 사회법의 영역에 포함되며 사회법은 주로 노동법, 사회보장법, 사회 관련법을 포함한다는 자료와 헌법 제32조, 헌법 제33조를 자료로 제시하여 헌법이 노동을 보장하고 있는 권리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그림4-4> 비상교육 역사 속 세상 읽기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역사 속 세상 읽기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우리는 왜 전태일을 '아름다운 청년'이라고 할까? 전태일은 초등학교 4학년 때 중퇴하고 17세 때부터 동대문 평화 시장에 있는 봉제 공장에서 재단사로 일하던 근로자였다. 당시 노동 환경은 매우 열악하여, 그는 차 한 잔 값이던 50원을 일당으로 받으면서 하루에 14시간씩 고된 노동을 하였다. 1965년 가혹한 노동 환경에서 일하던 동료 여성 근로자가 직업병인 폐렴으로 강제 해고되자 이를 돕다가 함께 해고되기도 하였다.

전태일은 이후에도 노동 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재단사 일을 계속하다가 1968년에 「근로 기준법」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1969년 6월 청계천 공장 단지 근로자들과 함께 '바보회'라는 조직을 결성하여 다른 근로자들에게 「근로 기준법」의 내용을 알리려고 노력하였다. 또한 지속해서 구청, 서울시 근로 감독관, 노동청에 찾아가 노동 환경 개선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1970년 11월 22세였던 젊은 전태일은 평화 시장 입구에서 「근로 기준법」 화형식을 하여 「근로 기준법」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현실을 고발하는 한편, "근로 기준법을 지켜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라고 외치며 온몸에 불을 붙여 분신자살하였다. 그의 죽음은 산업화 과정에서 희생당하던 당시 근로자의 삶이 사회 문제로 드러나는 계기가 되었고, 우리나라 노동 운동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다.

- 전태일 재단 -

▶ 전태일이 작성한 진정서



▶ 평화 시장 앞 전태일 동상

비상교육은 '역사 속 세상 읽기' 탐구를 통해 전태일을 소개하며 근로기준법이 존재하지만 실질적인 보장을 하고 있지 않음을 알리는데 노력했던 그의 노동 운동이 우리 노동 운동 발전에 큰 기여를 하였음을 알리고 본문의 노동법과 연계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제시하였다. 소단원 '2. 법으로 보장되는 근로자의 권리'에서는 최저 임금 제도를 자료로 제시하여 1988년 최저 임금법이 제정되기까지 헌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의 역할을 이야기하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보는 탐구를 통해 근로계약서 작성 시 명시해야 하는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표4-16> 비상교육 V. 사회생활과 법 유형에 따른 분포

비상교육		V. 사회생활과 법			
유형	단원	본문	자료	사례	탐구
연소 근로자의 정의	5-1				
	5-2				
	5-3	1	1	1	
근로기준법의 개념	5-1				
	5-2				
	5-3	1	1	1	1
근로계약서의 작성	5-1				
	5-2				
	5-3	1	1	1	
청소년 알바 10계명	5-1				
	5-2				
	5-3	1	1	1	
연소자가 아닌 미성년 근로자	5-1				
	5-2				
	5-3	1		1	
최저 임금	5-1				
	5-2				
	5-3	1	1	1	
노동 3권	5-1				
	5-2				
	5-3	1	1	1	
총합		7	6	7	1

비상교육은 천재교육과 지학사가 각각 소단원의 하위 주제에 ‘퇴직과 해고’, ‘부당 해고와 부당 노동 행위’의 범주에 내용을 서술하는 것과는 다르게 개인 근로자의 권리에 대해 일차적으로 퇴직과 해고에 대한 설명을 하고 이후 소단원의 하위 네 번째 주제 ‘부당한 권리 침해를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을까?’를 통해 구제 절차에 관한 설명을 나타낸 그림 자료와 본문을 통해 한번 더 소개하고 있다.

‘단체로서 근로자의 권리에 어떤 것이 있을까’는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으며 이는 타 교과서에서 설명하는 부분과 일치한다. ‘탐구’의 ‘영화 속 세상 읽기’의 영화 ‘물리 맥과이어스’를 소개하여 사립 탐정이 이민 근로자들이 일하는 탄광으로 들어가 비밀 노동 운동 조직을 색출하는 임

무를 맡았으나 오히려 열악한 노동 환경을 맞닥뜨리고 충격을 받는다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이를 통해 근로 3권을 보장해야 함을 학생들과 말해보는 탐구활동을 제시하였다. 또한 본문은 연소 근로자의 근로 계약에 관해 본 분석 유형 중 연소 근로자는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말하고 있음을 정확하게 정의하고 있고 ‘지식+더하기’탐구를 통해 청소년의 아르바이트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며 이 내용은 청소년 아르바이트 십계명을 ‘통합사회’교과를 통해 학습한 학생들에게 심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설정하였다.

‘생각을 키우는 활동’은 임금 체불 시 구제 절차를 나성실이라는 가상의 근로자를 설정하여 사건을 설명하여 근로 당사자가 고용 노동부와 대한 법률 구조 공단을 통해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학생들이 안내받을 수 있도록 설명하고 있다. 비상교육은 본문과 함께 다양한 자료를 제시하였으며 역사나 영화와 같은 다양한 탐구활동을 학습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타 교과서와는 차별화 된 학습 기회를 제시하였다.

제4절 교과서 내용 분석 종합

먼저 ‘통합사회’ 과목은 근로 기준법에 대한 ‘통합사회’의 유형에 따른 교과서별 분포를 IV. 인권보장과 헌법단원에서 살펴보면 천재교육은 본문에서 (4회), 사례에서 (6회), 탐구에서 (2회) 총 (12회)였으며, 지학사는 본문에서 (2회), 사례에서 (2회), 탐구에서 (3회), 총 (7회)를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상교육은 본문에서 (6회), 사례에서 (3회), 탐구에서 (5회)로 총 (14회)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으로 V. 시장경제와 금융 단원은 천재교육은 5-2 단원에서 연소 근로자의 정의와 노동 3권을 본문에서 (2회), 자료 (1회), 사례 (1회), 탐구 (1회), 총(5회) 제시하고 있으며, 지학사에서는 본문 (1회), 자료 (1회), 탐구 (1회)에서 총(3회)를 비상교육에서는 본문 (3회)와 자료 (1회)에서 총 (4회)를 제시하고 있다. 2개 단원의 근로기준법 관련 내용의 빈도 분석의 출판사별 차이는 천재교육(17회), 지학

사(10회), 비상교육(18회)이다.

<표4-17> ‘통합사회’ IV단원의 유형에 따른 분석 종합

통합사회		IV. 인권 보장과 헌법											
		친재교육				지학사				비상교육			
유형	단원	본문	자료	사례	탐구	본문	자료	사례	탐구	본문	자료	사례	탐구
연소 근로자의 정의	4-1												
	4-2												
	4-3			1									1
근로기 준법의 개념	4-1												
	4-2								1				
	4-3			1	1					1			1
근로계 약서의 작성	4-1												
	4-2												
	4-3	1		1				1		1		1	1
청소년 알바 10계명	4-1												
	4-2												
	4-3	1		1		1		1					1
연소자 가 아닌 미성년 근로자	4-1												
	4-2								1	1			
	4-3									1		1	
최저 임금	4-1												
	4-2												
	4-3	1		1					1	1			1
노동 3권	4-1												
	4-2												
	4-3	1		1	1	1				1		1	
총합		4		6	2	2		2	3	6		3	5

<표4-18> ‘통합사회’ V단원의 유형에 따른 분석 종합

통합사회		V. 시장 경제와 금융											
		천재교육				지학사				비상교육			
유형	단원	본문	자료	사례	탐구	본문	자료	사례	탐구	본문	자료	사례	탐구
연소 근로자의 정의	5-1												
	5-2	1											
	5-3												
	5-4												
근로기 준법의 개념	5-1												
	5-2									1			
	5-3												
	5-4												
근로계 약서의 작성	5-1												
	5-2												
	5-3												
	5-4												
청소년 알바 10계명	5-1												
	5-2												
	5-3												
	5-4												
연소자 가 아닌 미성년 근로자	5-1												
	5-2					1			1	1			
	5-3												
	5-4												
최저 임금	5-1												
	5-2						1			1			
	5-3												
	5-4												
노동 3권	5-1												
	5-2	1	1	1	1						1		
	5-3												
	5-4												
총합		2	1	1	1	1	1		1	3	1		

‘정치와 법’ 교과서에 노출된 근로기준법 관련 내용 분석의 빈도를 살펴보면 천재교육은 본문에서 (5회), 자료에서 (5회), 탐구에서 (6회)로 총 (11회)임을 알 수 있었으며, 지학사는 본문에서 (7회), 자료에서 (4회), 사례에서 (5회), 탐구에서 (7회)로 총(23회)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비상교육은 본문에서 (7회), 자료에서 (6회), 사례에서 (7회), 탐구에서 (1회), 총 (21회)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교과서 별 총 노출 빈도는 천재교육(11회), 지학사(23회), 비상교육(21회)임을 알 수 있다.

<표4-19> ‘정치와 법’ V단원의 유형에 따른 분석 종합

정치와 법		V. 사회생활과 법											
		천재교육				지학사				비상교육			
유형	단원	본문	자료	사례	탐구	본문	자료	사례	탐구	본문	자료	사례	탐구
연소 근로자의 정의	5-1												
	5-2												
	5-3		1		1	1	1	1	1	1	1	1	
근로기 준법의 개념	5-1												
	5-2												
	5-3	1	1		1	1	1	1	1	1	1	1	1
근로계 약서의 작성	5-1												
	5-2												
	5-3	1	1		1	1		1	1	1	1	1	
청소년 알바 10계명	5-1												
	5-2												
	5-3				1				1	1	1	1	
연소자 가 아닌 미성년 근로자	5-1												
	5-2												
	5-3	1	1		1	1		1	1	1		1	
최저 임금	5-1												
	5-2		1			1							
	5-3	1			1	1	1		1	1	1	1	
노동 3권	5-1												
	5-2												
	5-3	1				1	1	1	1	1	1	1	
총합		5	5		6	7	4	5	7	7	6	7	1

단순한 빈도에 대한 분석으로 내용의 분량을 파악하지 않았지만 다양한 사례와 자료를 활용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과 본문에서 심도 있게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확인 할 수 있었으며 주목 할 만 한 점은 ‘통합사회’교과서나 ‘정치와 법’ 교과서의 출판사별 특징보다는 집필자에 의해 그 내용과 구성이 달라진다는 점이였다. 특히 ‘통합사회’ 교과에서 근로 관련 내용의 노출 빈도가 가장 적었던 지학사의 경우 ‘정치와 법’ 교과서에서는 가장 상세하게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고시된 성취기준을 통해 집필자의 의도에 따라 교과서의 구성 내용이 달라진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앞서 교과서의 진술 분석을 통해 ‘통합사회’ 교과서의 근로 관련 내용에 대한 구성이 청소년의 근로기준법에 대한 이해를 하는데 적합한가에 아쉬움이 있다. 예를 들어 근로기준법상 연소근로자는 만 18세 미만의 자이며, 민법상 행위능력은 만 19세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연소근로자가 아니면서 미성년자인 근로자는 연소근로자와 성인과는 또 다른 근로 기준을 두고 있다. ‘통합사회’의 그 어떤 교과서도 이 부분에 대한 진술을 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드라마에서 설정된 연령이 청소년인 주인공 혹은 등장인물이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모습을 노출하는 경우가 있다. 허나 현행 연소근로자의 법률에 따르면 청소년은 편의점에서 근무를 할 수 없게 되어있다. 이것은 청소년 금지 물품을 팔 수 있는 편의점에서 청소년이 근무한다는 것이 당연히 안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미디어조차 고증을 잘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저임금제는 국민의 생존권을 위해 근로자가 최소한의 일정 금액 이상을 임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호하는 강행 규정이다. 이는 대한민국의 헌법 제 32조 제1항,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 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최저 임금에 대한 내용도 ‘통합사회’는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다.

‘통합사회’교과서에 비해 비교적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정치와 법’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과목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그 내용이 방대하고 문제를 풀기 위한 학습을 하다 보니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학습 보다는 내용 중심의 전달 수업을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또한 수능 과목은 5종 교과서의 모든 내용이

나올 수 있어 학교에서 지정한 교과서 보다는 5종 교과서의 내용을 모두 통합한 EBS 교육방송의 교재를 주교재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와 법’의 기본 내용을 모두 이수한다면 우리나라 생활 속의 법률에 대한 기초 지식은 학습할 정도의 충분한 내용이 있다고 하지만 문제는 ‘통합사회’교과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고등학교 1학년 필수과목으로 정해 모든 학생이 이수를 해야 하는 반면 ‘정치와 법’은 선택한 일부 학생만이 그 내용을 학습하는 시민이 된다는 점이다. 다음은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탐구 영역의 과목별 응시자 현황이다.

<표4-20>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탐구 영역 과목별 응시자 현황

과목명	인원(명)	비율
생활과 윤리	142,541	33%
윤리와 사상	34,226	7.9%
한국지리	34,489	7.9%
세계지리	25,980	6.0%
동아시아사	20,413	4.7%
세계사	16,457	3.8%
경제	4,927	1.1%
정치와 법	25,682	5.9%
사회·문화	127,189	29%

<표4-17>에서 볼 수 있듯이 ‘정치와 법’을 선택한 수험생의 비중이 5.9%로 많은 비중이 아니며 이 학생이 아닌 경우에 대부분의 학생들은 근로기준법과 관련된 내용을 학습하는 것이 고등학교 1학년 ‘통합사회’가 마지막이 된다는 것이다.

제5장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에 따라 제작된 고등학교 1학년 필수 과목인 ‘통합사회’와 고교학점제하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선택과목인 ‘정치와 법’에 근로자 인권 관련 내용이 어떠한 비중으로 다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는 2015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통합사회’와 ‘정치와 법’ 교과서에 제시된 근로자 인권 관련 내용의 분포와 진술 내용을 분석하여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근로 관련 법률에 대한 학생이 청소년 근로자로서 혹은 성인 근로자가 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노동 문제에 대해 대처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이 충분한가에 대해 분석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교과서 분석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통합사회’와 ‘정치와 법’ 과목의 검정 교과서 중 (주)천재교육, (주)지학사, (주)비상교육을 선정하여 근로 관련 내용을 담고 있는 단원으로 ‘통합사회’는 IV. 인권보장과 헌법, V. 시장경제와 금융, ‘정치와 법’의 V. 사회생활과 법을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근로기준법에 대한 분석의 가시화를 위해 중요 개념을 7가지 유형(연소 근로자의 정의, 근로기준법의 개념, 근로계약서의 작성, 청소년 알바 10계명, 성인 근로자의 차이, 최저 임금, 노동3권)으로 조작적 정의하였으며, 7가지 유형에 해당하는 내용이 교과서에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파악하여 도표로 정리하였다. 교과서에서 학생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실생활에서 필요한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 체계적인 정리를 하였으며, 연구 문제에 따른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통합사회’ 3종 교과서의 근로 기준법의 유형에 따른 분포를 통해 알 수 있는 점은 근로 관련 내용의 양이 교과서별로 통일성 있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었다. 다만 교과서별로 개념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설명의 방식이나 진술의 양식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었다는 점은 알 수 있었다. 학습 과정에서 동일 개념에 대한 설명에 미묘한 차이와 오개념 형성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학습 부담과 혼란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진술 분석에 있어서는 비상교육이 가장 많은 내용을 담고 있었으며, 구체적인

사례와 사진을 통해 학습자의 이해에 도움이 되는 요소를 가지고 있었다. 천재교육은 비교적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었으며 특히 창의 융합 활동은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을 충분히 제시하여 주었다. 지학사는 근로기준에 관한 내용을 간략하게 제시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둘째,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정치와 법’ 3종 교과서의 근로 기준법의 유형에 따른 분포를 봤을 때 수능과목으로서 출제되는 범위와 영역이 비교적 구분되어지는 과목의 특성답게 근로 교육 내용 요소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에 따라 모든 교과서가 내용 요소의 빠짐없이 잘 구성되어져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해력을 높이기 위해 사진, 삽화, 사례 등 다양한 읽기 자료를 풍성하게 하여 이해력을 도울 수 있으나 자칫 부족한 지면으로 인해 본문의 기본 이론이 본문의 양이 줄어들 소지가 있다. ‘정치와 법’ 교과서는 전체적으로 지학사가 가장 많은 자료를 제시하고 있었으며 비상교육도 다양한 내용을 사례와 함께 제시하였다.

앞서 본 ‘통합사회’ 교과서에서 지학사 교과서가 가장 적은 양을 서술하고 있는데 반해 ‘정치와 법’은 가장 상세하고 구체적인 기술을 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 하다. 또한 ‘통합사회’에서 다양한 구성을 하고 있던 천재교육의 경우 ‘정치와 법’에서는 근로관련 내용의 기술보다는 다른 법률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출판사별 특징이 있다고 단정 짓기 힘들다는 특징을 알 수 있다.

셋째, 고등학교 사회교과는 교육내용을 구성할 때 내용체계와 더불어 실천적 교육과 이론적 교육을 적절히 반영해야 한다. 따라서 ‘통합사회’와 ‘정치와 법’ 교과서를 통한 근로관련 내용을 학습한 청소년이 장래 실생활에 적용할만한 충분한 내용을 제공하고 있는가를 보면 학습자의 일상생활과 관련성이 깊은 사례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근로 관련 사례가 적은 교과서는 2건에서 많은 교과서는 6건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통합사회’는 연소근로자가 아닌 미성년자의 근로와 관련된 내용, 청소년 유해업종에 대한 상세한 열거 등 부족한 면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정치와 법’은 그 내용이 너무 많고 시험을 보기 위한 과목으로 전략해 실생활에 필요한 부분보다는 변별력을 크게 낼 수 있는 부분에 더 많은 학습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학교 현장에서 교사의 역량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교

사는 현장에서 교과서를 분석하고 재구성하여 학생에게 근로교육의 실천적 자세를 지향하기 위한 학습자 일상의 경험을 기반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학생의 관심도를 높이고 근로 교육을 통해 근로 문제에 대한 민감도를 높여줄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학교 현장에서 교사는 그저 정해진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 내용을 단순히 전달하는 교육과정의 전달자 역할을 벗어나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교수·학습 내용과 방법을 결정하고 새롭게 조직하여 수업활동에 적용하는 능동적인 실행자로서의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기존의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사회’가 고등학교 전 과목의 선택 과목화로 인해 선택과목으로 편성되었다는 한계와 근로 관련 교육 내용이 누락되었던 것을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통합사회’에서는 그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대강화 도입이 출판사별 교과서 구성에 재량권을 도입했다는 점에서 근로 관련 내용의 양과 구성 체계가 적절한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통합사회’는 기존에 사회과 역사에 없었던 도덕, 지리, 역사, 일반사회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통합 교과이며 수능 선택과목인 ‘정치와 법’도 앞으로 적용될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내용 변경 없이 수년간 지속하여 시행할 것이 예정되어 분석에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 사회과 교육이 직면해있는 일방적인 교과목의 지식전달이 가져오는 이상과 현실의 괴리감을 줄이고 실생활에 꼭 필요한 목차들의 경우 다양한 일상 경험이나 사례를 적용하여 학생들이 쉽게 학습할 수 있도록 개편하여 구제제도의 절차, 형식적 방법을 학습자들에게 제시하고자 했다. 특히 어린 학생들이 노동 시장에서 겪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을 대처하기 위해 이들이 법 적용에 쉽게 다가갈 수 스스로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길을 제시하는 것은 사회과 교육의 궁극적 목표인 우리 사회와 국가가 필요로 하는 성숙하고 훌륭한 민주시민 육성에 일조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근로기준법과 관련하여 고등학교 교과서인 ‘통합사회’는 고교학점제 선택과목인 ‘정치와 법’을 선택하지 않은 학생들이 마지막으로 법에 대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과목으로 그 중요성이 작지 않다고 봐야 할 것이다.

다만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분석대상으로 삼은 ‘통합사회’와 ‘정치와 법’ 교과서는 각각 5종

의 검정 교과서가 나와 있다. 분석의 편의를 위해 비슷한 유형의 교과서를 제외하고 독자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출판사의 교과서 3종만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모든 교과서의 내용을 파악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해석에 있어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있어 일반화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그리고 교과서 내에 근로기준법에 대한 내용의 분포를 파악함에 있어 근로기준법 관련 내용을 7가지 유형(연소 근로자의 정의, 근로기준법의 개념, 근로계약서의 작성, 청소년 알바 10계명, 성인 근로자의 차이, 최저 임금, 노동3권)으로 조각적 정의 하였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이것은 분석의 편리함과 더불어 내용을 수량화하여 가시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이 7가지의 유형이 장래의 청소년의 실생활에 꼭 필요하다는 분석기준이 연구자 주관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통합사회’와 ‘정치와 법’ 교과서에 제시된 근로 관련 내용의 분석은 지금까지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은 연구 주제로 청소년 근로 문제가 사회문제로서 인식되고 있다는 점과 더불어 노동 시장에서의 청소년이 겪는 어려움에 대한 문제를 대처하기 위해 학교 교육의 현실을 파악해보면서 고등학교 졸업 후 근로자로 살아가게 될 청소년들에게 근로자 인권에 대해 어떤 이해도를 갖추어야 하는지에 대한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 참 고 문 헌 -

<단행본>

- 구정화 외. 『고등학교 통합사회』. 서울: (주)천재교육, 2018.
- 김왕근 외. 『고등학교 정치와 법』. 서울: (주)천재교과서, 2019.
- 모경환 외. 『고등학교 정치와 법』. 서울: (주)금성출판사, 2019.
- 모경환 외. 『사회과 교육』. 서울: 동문사, 2021.
- 박병기 외. 『고등학교 통합사회』. 서울: (주)비상교육, 2019.
- 박상준. 『사회과 교육의 이론과 실제』. 서울: 교육과학사, 2009.
- 서범석 외. 『고등학교 정치와 법』. 서울: (주)지학사, 2019.
- 육근록 외. 『고등학교 통합사회』. 서울: (주)동아출판, 2019.
- 이경호 외. 『고등학교 정치와 법』. 서울: (주)미래엔, 2019.
- 이진석 외. 『고등학교 통합사회』. 서울: (주)지학사, 2019.
- 정필운 외. 『고등학교 정치와 법』. 서울: (주)비상교육, 2019.
- 정창우 외. 『고등학교 통합사회』. 서울: (주)미래엔, 2019.

<학위논문>

- 김나영 (2023).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확대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 노동법학과.
- 김재연 (2010). “고등학교 법과 사회 교과서의 내용 분석 및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민아 (2014). “청소년 아르바이트 경험과 진로 성숙도의 관계성 연구”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정아 (2019).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의 인권교육 내용 분석 : ‘통합사회’, ‘정치와 법’ 교과서를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이현정 (2022). “실업계 고등학생의 시간제 취업 여부에 따른 진로의사결정 효능감과 진로 태도성숙의 차이” 명지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무빈 (2023). “오토바이배달업에 종사하는 청소년의 삶” 명지대학교 대학원 : 청소년지도학과 석사논문.
- 최보람 (2012).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사회과 교사 인식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상진 (2017). “청소년의 근로실태와 법적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 일본의 경험과 사례 비교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 한연숙 (2001). “아르바이트 경험과 청소년의 의식 및 행태에 관한 연구 : ‘경기 북부 실업계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학술지>

- 강운선 (2001). 통합교육과정 방향에 따른 사회과 교과서 개발원리와 실제. 사회과교육, 34, 463-488.
- 구자빈 (2022). 인권교육을 위한 인권의 개념 정의와 교수·학습 방법 -고등학교 통합사회와 연계하여 속성모형을 중심으로-. 한국사회교과교육학회 학술대회지, 2022(8), 245-266.
- 구정화 (2018).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인권교육 내용체계 분석: 사회/도덕 교과 성취기준을 중심으로. 법교육연구, 13(1), 1-33.
- 김명정 (2018). 정치교육의 재구조화 방안 -입법 중심의 고등학교 정치와 법-. 시민교육연구, 50(4), 23-48.
- 김명정 (2021). 고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정치와 법의 통합 문제 -2022 교육과정 개정 논의와 관련하여-. 법과인권교육연구, 14(2), 5-24.
- 김정숙·성열관 (2014). 자율형 사립고 사회통합전형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한국교육, 41(3), 119-145.
- 남효순 (2014). 고등학교 법과 정치 교과서의 분석과 개선 모색- 민사법 분야-. 법교육연구, 9(3), 1-39.
- 류명철 (2019).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간의 상호 ‘긍정적 연관성 관계’와 ‘긴장 갈등 관계’. 대한정치학회보, 27(1), 137-169.
- 모경환·박형준 (2021). 고등학교 ‘통합사회’운영 실태와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개발 방향. 시민교육연구, 53(4), 55-93.

- 박가나 (2018). 2015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통합사회 교과서에 나타난 논쟁 문제 양상 분석. *교육연구*, 72, 31-62.
- 박은주 (2008). 고등학교 「법과 사회」 과목이 학생들의 법적관용성에 미치는 영향. *법교육연구*, 3(1), 73-101.
- 배화순 (2020). 고등학교 정치와 법 교과서에 제시된 판례 분석과 개선 방안 탐색. *법교육연구*, 15(2), 65-96.
- 유동훈 · 김종규 · 박건영 (2020). 자율형 사립고 사회통합전형 졸업생들의 고등학교경험에 대한 사례 연구. *교육행정학연구*, 38(1), 223-251.
- 유명철 (2018). 제3세대 인권의 측면에서 고등학교 「법과 정치」 교과서의 내용 분석. *사회과교육*, 57(4), 1-21.
- 윤중수 · 김해성 (2016). 고등학교 ‘법과 정치’ 교과서에서의 노동인권교육 내용 분석. *법교육연구*, 11(2), 65-98.
- 이대성 (2010). 고등학교 「법과 정치」 과목의 교과서 개발 원리와 실제.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학술대회*, 2010(1), 49-75.
- 이수진 (2022). 고등학교 ‘정치와 법’ 교과서의 미디어 리터러시 관련 내용 분석. *법교육연구*, 17(2), 25-28.
- 이환옥 (2009). ‘인권’에 관한 고등학교 사회 통합 단원 구성. *한국사회교과교육학회 학술대회지*, 2009(1), 247-281.
- 이효원 (2014). 고등학교 법과 정치 교과서 분석과 개선 모색 - 헌법 분야-. *법교육연구*, 9(3), 67-87.
- 조우영 (2007). 고등학교 ‘법과 사회’ 내용 구성과 수업의 한 방안(법의 존재이유에서 법이념 끌어내기. *사회과교육연구*, 14(3), 73-88.
- 한미경 · 고희림 · 최윤정 (2020). 직업계 고등학교의 노동인권교육에 관한 텍스트 마이닝 분석: 성공적인 직업생활, 통합사회 교과서를 중심으로. *사회과교육*, 59(4), 63-81.
- 홍익표 · 진시원 (2012). 헌법에 대한 정치학적 접근: 정치교육과 법교육의 교차지점인 헌법교육을 위한 하나의 시론. *법교육연구*, 7(2), 203-228.

<간행물>

- 교육과학기술부(2009).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제2009-41호.
- 교육과학기술부(2009).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총론』. 제2009-41호.
- 교육과학기술부(2009). 『사회과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9-10호.
- 교육부(2015).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제2015-74호.
- 교육부(2015). 『2015 개정 교육과정』. 별책 7 사회과 교육과정 제2015-74호.
- 교육부(2015). 『2015 개정 교육과정』. 별책 4 고등학교 교육과정 제2015-74호.

<인터넷 자료>

- 대구광역시 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dge.go.kr/main/html.do?menu_idx=33
- 진순현 (2023.2.23.). “제주청소년 90.6% 근로(노동)교육 필요해”. 『제주도민일보』. <https://naver.me/FyxT2H57>
- 이형섭 (2022.12.14.). “강원도청소년 근로실태... 근로계약서 없는 경우 52.2% 1위”. 『뉴스핌』. <https://naver.me/FniICGuL>
- 권이선 (2018.10.03.). “일 더하고 돈은 못 받고 ‘노동 착취’에 내몰리는 10대들”. 『세계일보』. <https://www.segye.com/newsView/20181003001908?OutUrl=naver>
- 구현모 (2021.11.01.). “취업 교육 가장한 노동 착취 - 안전 시각 특성화고 현장실습”. 『세계일보』. <https://www.segye.com/newsView/20211031508672?OutUrl=naver>
- 고은지 (2023.05.18.). “서울시, 5년 이내 ‘MZ세대 공무원’ 스트레스 관리 교육”,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30518064400004?input=1195m>
- 도재진 (2023. 05.24.). “학교 밖 청소년, 학생도 노동자도 아닌 ‘문제아’로 낙인” 『가톨릭평화신문』. <https://news.cpbc.co.kr/article/1109765?division=NAVER>